

洞 祭 와 堂 祀

—京畿道 楊州郡의 事例를 중심으로—

李 杜 鉉

(國語教育科)

1. 序 言

現行되는 部落祭를 儒式祭禮로 행해지는 洞祭와 巫堂에 의한 곳으로 행해지는 堂祀으로 二大別하여 보았다. 1930年代의 調査에 의하면 各道別 部落祭 名稱은 「洞祭」가 首位로, 慶尙南北道, 京畿道, 江原道, 忠清北道 등에 많이 分布되고, 「城隍祭」는 江原道, 平安南北道에 많고, 「山神祭」는 江原道, 忠清南道, 京畿道에 많고, 「堂山祭」는 全羅南北道, 慶尙南道에 많고, 「山川祭」는 江原道, 咸鏡南北道, 黃海道에 많고, 「山祭」는 京畿道, 忠清南北道에 많고, 「洞神祭」는 慶尙南北道에 많고, 「堂祭」는 黃海道, 慶尙北道, 平安南道에 많고, 「天祭」는 咸鏡南道, 江原道에 많고, 「厲祭」는 咸鏡南道에 많다고 하였다. (村山智順, 1937)

그리고 祭堂의 名稱은 大體로 4個地域으로 나눌 수 있는데, 「山神堂」의 名稱은 京畿道, 忠清南道 西海岸地域이 中心이 되고, 「城隍堂」은 江原道와 慶北, 忠北 등 山間地域이 中心이 고, 「堂山」은 嶺南·湖南地方에서 널리 불려지고, 濟州道는 「本郷堂」과 「酬祭壇」이 보편적이다. (李杜鉉, 1969)

部落祭의 歷史는 夫餘의 「迎鼓」, 高句麗의 「東盟」, 濊의 「舞天」, 馬韓의 「春秋祭」 등 祭天儀禮에까지 소급되고, 高麗는 高句麗의 「東盟」을 계승하여, 佛敎色彩는 가미 되었으나 如前한 祭天儀禮로서 「八關會」를 仲冬에 國家的 祭典으로 거행하여 왔다. 그러나 儒敎를 治國理念으로 삼은 李氏朝鮮은 國初로부터 寺社革罷를 斷行하고, 高麗朝의 八關會와 燃燈行事를 公儀로서는 廢止하고 말았다. 한편 太祖는 建國初에 敎書로 冠婚喪祭의 禮를 厚히 할 것을 擧示하고 그 勵行을 勸獎하였으므로 王侯士族은 물론이요, 널리 民庶에 있어서도 이를 모방하여 5百年의 긴 歲月을 지나면서 여기에 不可拔의 國民의 習俗을 이루게 되었다. (金斗憲, 1969) 특히 祭禮에 있어 家廟之法을 勵行하고 祠堂建立을 強調하기 시작한 記事들이 世宗實錄에서부터 보인다. 그후로 世祖와 成宗을 거치면서 壬辰亂前의 朝鮮朝의 隆盛期에 儒敎祭禮는 民間에까지 널리 普及되어갔다. 이같은 후세에서 짐차 在來의 堂祀 形式의 部落祭도 儒式洞祭가 많아지고, 또 經濟的 理由에서오는 簡素化로 더욱 儒式洞祭가 많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部落祭가 三國時代의 祭天儀禮 以來로 巫堂에 의한 堂굿으로 행해오던 傳統이 高麗時代에는 佛敎의 影響으로 그 이름은 八關會인 佛敎式으로 바뀌었으나 그 內容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仙官에 의해 主祭되었고, 朝鮮期에 와서도 東國輿地勝覽과 邑誌와 東國歲時記 등 文獻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城隍祭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나 其實은 많은 部落祭가 堂굿의 傳統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淸安의 國師神祭와 熊川의 熊山神堂祀, 高城郡神祀, 그리고 固城의 城隍祭와 江陵의 城隍祭는 오늘의 端午굿을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部落祭의 名稱에 「洞祭」 다음으로 「城隍祭」가 많은데 이것은 外來의 公儀가 民間레벨에까지 내려가 部落都邑의 守護神인 山神과 結合되어 그 名稱만 受容되었을 뿐 그 行事의 性格이며 內容은 우리나라 固有信仰속에서 變容되어 간 것이다.

우리나라에 中國의 城隍神祀가 소개된 것은 高麗文宗(1047~82)때로 中國 것을 모방하여 新設의 城鎮에 城隍神祠를 두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朝鮮朝에 계승되어 太祖때 모든 山川 城隍神에 封號를 내리게 되고, 이후 公儀로서 계속되었다. 城隍이란 元來 城池의 뜻으로 城池로 둘러싸인 城邑의 守護神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껏 中國(臺灣)의 部落神으로 城隍爺는 土地公信仰과 함께 살아 있다.

文獻에 전하는 部落祭의 實相을 우리는 民俗으로 現傳하는 洞祭와 堂굿에서 볼 수 있다. 京畿道一帶에 남아 있는 都堂굿이 가장 原來的인 形式이고, 嶺東의 部落祭는 平常祭는 儒式洞祭를 지내나 特別祭로 每年, 또는 3年, 5年, 10년에 한번씩 祭日子正에 儒式祭禮를 지낸 다음에 巫堂이 主祭하는 「別神굿」을 2日, 또는 3日씩 거행한다. 京畿道에서도 過去에 廣州郡 中部面 奄尾里에서 儒式祭禮 다음에 巫堂과 廣大를 불러하는 「고창굿」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儒式祭禮인 「洞祭」는 朝鮮期 後半期에 儒敎祭禮가 民間레벨에까지 보급된 뒤에 취해진 形式이었으나 오늘날 全國적으로 그 分布가 으뜸간다. 湖南의 堂山祭에서는 儒式洞祭와 함께 아직까지 農樂이 神樂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 部落祭의 實例로 京畿道 楊州郡의 都堂굿과 洞祭를 民俗誌로 소개하여 보겠다. 紙面關係로 嶺東과 湖南의 實例를 함께 들어 比較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2. 維楊里의 洞祭와 堂굿

1) 里勢一般

京畿道 楊州郡 州內面 維楊里는 議政府에서 약 5km 北西方에 위치하며, 뒤로는 岩山인 높이 360.8m인 佛谷山(一名 佛國山)을 업고, 南으로 옛 綠楊驛과 서울 方面, 北으로 積城 麻田, 漣川方面, 東北으로 東豆川, 永平方面, 東으로 松隅里, 抱川方面으로 통하던 옛 交

通의 要衝으로, 옛 驛路는 維楊里에서 乘鶴橋를 지나 당채고개를 넘어 南坊里 성너머로 하여 비석거리 다락리로 빠져 서울로 들어 왔다. 維楊里라는 이름도 乘鶴橋로부터 驛路 兩側に 白楊木이 많았기에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新增 東國輿地勝覽 楊州牧條에 보면 州北三里에 鎭山인 佛谷山, 州南三十里에 綠楊驛, 州西五里에 大母山城, 州西에 社稷壇, 州東十里에 城隍祠, 州北에 厲壇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지금의 維楊里가 바로 楊州郡行政의 중심지인 楊州牧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것은 維楊里를 지금도 흔히 「楊州舊邑」이니, 「楊州邑內」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도 일치한다. 楊州牧使가 자리잡고 있던 이곳에는 지금도 維楊八景이란 名勝이 전하고, 鄉校와 乘鶴橋, 禦射臺, 옛官家의 礎石, 功德碑, 山城터 등 古蹟과 또, 林巨正傳說이 口碑로 전하고 있다.

維楊八景은 1. 山城落照, 2. 溪間瀑布, 3. 華庵鐘聲, 4. 仙遊洞天, 5. 金華暮煙, 6. 乘鶴列柳, 7. 道峰露月, 8. 水落起雲 등을 일컫는다.

현장시절에는 약 3,000餘戶의 집이 들어섰고, 酒幕이 櫛比하였었다는 이곳도 韓日合邦후 新作路가 나고 鐵道가 놓이게 됨에 따라 1920년경에 郡廳이 議政府로 옮겨지고, 面事務所, 警察官派出所마저 6·25動亂후 南坊里로 옮겨, 현재는 里行政 單位의 적은 마을에 不過하며, 沒落한 여러 舊邑의 典型的인 例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圖 1.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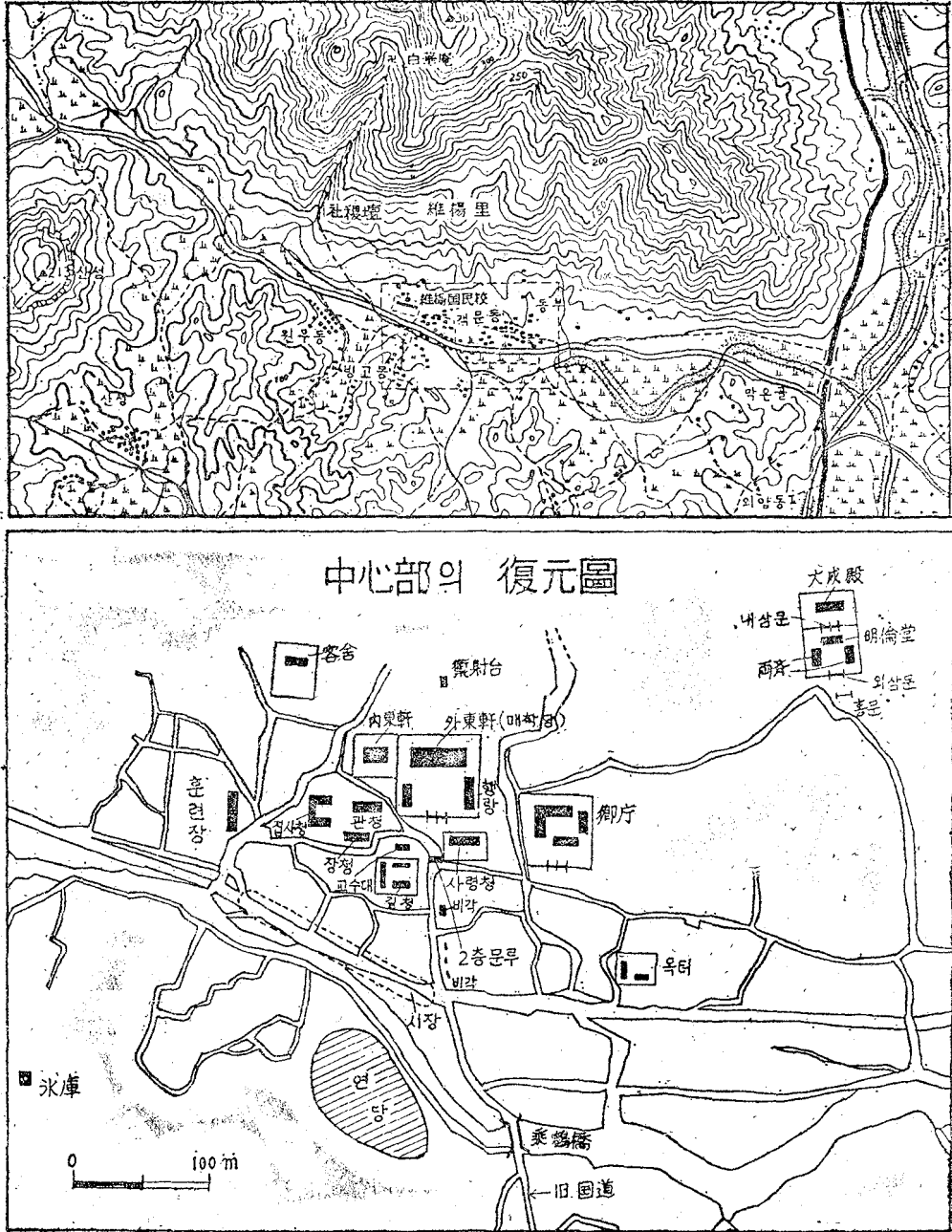
현재 維楊里는 院隅洞(院洞과 隅洞을 合併), 水庫洞, 山城洞, 客門洞(一名 紅門洞), 東部洞의 5개班으로 나누이는데 1978年 現在의 戶數와 總人口는 160戶에(175世帶) 1,169名인데 男子 574名, 女子 595名이다. 제1반 院隅洞(모퉁이말)은 32戶, 제2반 水庫洞은 26戶, 제3반 山城洞은 25戶, 제4반 客門洞은 37戶, 제5반 東部洞은 40戶이다.

그중에서 牧使가 주재하던 客門洞을 중심으로 소위 「본바닥」 사람들만이 楊州山臺놀이를 전승하여왔는데, 이 客門洞의 現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維楊里 제4반 客門洞은 39世帶主에 人口는 209명(男子 107名, 女子 102名)이며, 年齡別統計는 10대~20대가 128명, 30대~40대가 49명, 50대가 25명, 60세 이상이 5명이다. 職業別統計는 農業은 自作農이 8명, 高等榮蔬栽培는 10호가 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주로 배추, 상추와 싹갓을, 봄에는 참외와 고추를 재배한다. 商業은 3명, 畜産業은 10명(그중 養兔 3명, 養鷄 4명, 養豚 3명), 公務員 5명, 기타 21명이다. 所得은 上中下層으로 나누면 維楊里 전체로 上은 2,000坪이상의 논밭을 가진자들로 25世帶, 年收는 쌀로 30가마 정도이고, 月收는 70,000원 정도이다. 中은 1,000坪 이상 소유주로 37世帶, 年收 쌀 20가마, 月收 4~50,000원 정도, 下는 500坪 이상 소유주로 55世帶, 年收는 쌀 10가마, 月收 2~30,000원정도이다.

客門洞의 姓氏는 金氏 11戶, 朴氏 6戶, 盧氏 4戶, 李氏 2戶, 柳氏 2戶, 韓氏 2戶, 石氏 1戶, 기타 14戶이다. 예전에는 盧, 咸, 朴 三姓이 勢道를 가져, 盧氏와 咸氏는 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咸氏는 지금은 東部洞에 一戶가 남아 있다.

〈圖 1〉 楊州(維楊里)의 附近圖



(李琦錫, 1967. 「舊邑聚落에 관한 研究」에서 轉載)

里長은 박용관(47세), 第4班長은 엄석주(49세), 새마을 事業 參與와 親睦을 도모하는 青年會가 있고, 婦人會는 節米貯蓄과 새마을 事業에 參與한다. 各種 親睦契로는 喪興契, 貯蓄契(貯蓄目的), 歲饌契(正月부터 契金を 모아 늘려서 陰曆歲末안으로 소나 돼지를 잡아 명일 쇠는 契)가 있다. 學校는 維楊國民學校가 있고, 中高等學校生은 議政府로 通學한다. 學歷別男女統計를 보면 大卒 3명(男), 高卒 22명(男 15, 女 7), 中卒 32명(男 20, 女 12), 國卒 63명(男 37, 女 26)이다. 文化施設은 새마을 會館이 있고, 라디오는 거의 각호마다 있다. T.V.는 마을전체로 100여대가 되고, 冷藏庫 10대, 오토바이 3대, 경운기 3대, 리어카 70대 가량이 있다. 宗教는 佛谷山에 白華庵이 있고, 마을안에 聖潔敎會가 있다. 敎人은 50명 정도인데, 이들은 대체로 마을의 山고사나 국수당같은 部落祭行事에는 參加하지 않는다. 娛樂은 명절 때 윷을 놀고, 화투놀이가 고작이다. 歲時風俗으로는 舊正, 대보름, 寒食과 秋夕省墓, 八月名節을 쇠는 정도이다. 冠婚喪祭에서 結婚式은 舊式과 新式結婚式이 半半인데, 新式結婚式은 議政府禮式場에서 올린다. 葬禮는 舊式으로 치루나 家庭儀禮法에 따라 많이 簡素化 되었다. 交通은 法院里行 버스가 20분마다 통과하고, 안골 白石行 버스는 하루에 일곱번 다닌다. 장은 議政府에서 보아온다.

끝으로 마을의 洞祭인 山고사는 陰曆 2月 3日과 8月 3日 春秋 두번 지냈으나 요즈음은 8月 3日에 지내는 가을 고사뿐이고, 국수당은 每 3년마다 3月말에 지낸다. 洞里에는 세군데 府君堂이 있었는데, 둘은 客門洞에, 하나는 東部洞에 있었다고 한다. 또 東部洞 東側에는 서낭당이 있었고, 西쪽 佛谷山 溪谷밑 平地에 있었던 社稷堂은 50여년 전에 없어졌으며 그곳은 「새젓골」이라고도 불리고 楊州別山臺놀이의 놀이터였던 곳이다. 洞里 東側 佛谷山 山頂에 山神堂이 있다. 지금은 굴참나무인 神木만이 남아 있으나 전에는 松木位牌에 「山王大神」이라고 적힌 神位를 모신 堂집과 祭壇이 있었고, 그 앞에 祭官들이 거처하던 草幕이 있었으나 6.25動亂에 다 타고 祭壇만 남았다. 마을 西쪽 佛谷山 기슭에 있는 국수당(國師堂)도 神木만 남아 있다.

2) 維楊里洞祭「山고사」

楊州舊邑에서 男子들만이 佛谷山 東쪽 山神堂에 모여 儒式으로 山神을 제사지내는 洞祭를 「山고사」라고 부른다. 祭祀는 每年 陰曆 2月 3日과 8月 3日 子正에 春秋 두번 올렸으나 요즈음은 8月 3日에만 올린다. 한편 女子들이 마을 西쪽 佛谷山 중턱에 있는 국수당에 모여 每 3年마다 3月말에 꽃마지굿으로 올리는 都堂굿이 있는데, 男女가 서로 자기네가 올리는 祭祀가 진짜 마을을 위하는 洞祭라고 주장한다. 秋葉隆는 이것을 「男女信仰의 分裂과 對立을 보여주는 것으로 朝鮮社會의 二重組織에 있어서의 極端한 모습」(秋葉隆, 1954)이라고 하였지만, 지금껏 이러한 洞祭의 二重組織은 계속되고 있다.

먼저 男子들에 의한 山고사에 대하여 1972年 11月 8日(陰曆 10月 3日)과 1977年 9月 25

日(陰曆 8月 13日)의 두차례의 參與觀察의 記錄을 정리하여 보겠다. 祭日은 72年에도 陰曆 8月 3日에 마을에 初喪이 나서 두달 뒤인 10月 3日로 연기되었으나 77年에도 化主의 外祖母가 돌아가 10日 뒤인 陰曆 8月 13日로 연기되었었다. 初 3日로 祭日을 잡은 것은 初喪, 出產 등의 不淨한 일이 생기기 전에 祭를 모시려는 이유에서이지만 번번히 이처럼 연기되었다.

모시는 神은 山神과 佛神이라고 하는데 祝文에는 「佛谷山山王大神」이라고 하였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山神은 호랑이라고 한다. 祭壇으로는 素壇과 肉壇의 두 곳이 있어 肉壇에 山王大神, 素壇에는 佛神을 모셨다. 素壇의 祭物에는 노구메 한 그릇에 순가락 셋을 꽂고, 生우세개, 두부세모를 놓는 것으로 보아 素壇에 모셨다는 佛神은 三佛帝釋이 아닌가 생각한다. 肉壇은 사람의 어깨정도 높이로 돌담을 三方으로 쌓았으나 素壇은 自然石 그대로를 祭壇으로 쓰고 있다.

京畿道 廣州郡 中部面 奄尾里의 洞祭에서는 바깥마을에서는 素山을 모시고, 안마을에서는 肉山을 모시는데, 祭祀期間동안 바깥마을에서는 온 마을이 素食을 한다. 김치에 넣은 새우 것이나 멸치젓도 꺼려 그런 김치는 먹지 않는다. 楊州에서는 이같이 같은 산에 素壇과 肉壇을 모신 것에 특색이 있다. 같은 山神을 모시면서 素山(壇)과 肉山(壇)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山고사지내는 目的은 祝文에도 나타나 있듯이 마을이 平安하고 農事가 잘되고 家畜도 繁盛하기를 비는데, 解放후로는 南北統一과 또 마을에서 나간 將兵들의 武運長久를 빈다. 이것은 거의 全國적으로 共通된 내용이다.

祭官은 初獻, 亞獻, 終獻의 三祭官, 執事한 사람, 祝官한 사람, 化主 한 사람을 깨끗한 사람중에서 뽑는다. 전에는 山고사 지내기 15日前에 선출했고, 선출된 祭官들은 보통동안을 근신했으나 近來에는 老人들이 없어 마을의 모임도 갖지 않고, 里長이 알아서 깨끗한 사람들을 선출한다고 한다. 따라서 會計報告도 里總會에서 里長이 한다. 깨끗한 사람이란 것은 自己집에 初喪이 없고, 初喪집에 가지도 않았고, 殺生하지 않고, 즉 개, 돼지를 잡아먹지 않은 사람, 그리고 자기집에 出產이 없는 사람, 즉 피부정이 없어야 한다. 심지어 自己 집에서 돼지세끼를 낳아도 祭官을 사퇴한다. 뱀을 보았어도 不淨으로 친다고 한다. 祭官들은 山고사 지낸뒤에도 석달은 不淨을 삼간다. 그러나 慶北 迎日郡 清河面 二加里에서와 같이 다음 祭官이 나올 때까지, 즉 一年을 淨하게 근신해야 하는 데도 있다.

전에는 祭官과 執事와 化主들은 아침에 올라가서 조라술 준비를 하고, 우물을 치고, 肉壇과 素壇을 소제하고, 子正에 祭祀를 올릴 때까지 草幕에서 지내고, 다음날 아침에 내려왔다. 山으로 올라갈 때는 山中間에서 不淨燒紙를 올리고, 집에서 沐浴하지만 中途의 샘에서 손과 얼굴을 씻었고, 肉壇에 바칠 祭物로 물고 가는 돼지도 씻겼다. 또 전에는 돼지를 물고 올라가다가 쓰러지면 그곳에서 잡아서 바쳤다고도 하고, 돼지를 지고 갈때는 돌에 놓

으면 죽으니 반드시 땅에다만 내려 놓아야 한다고 한다. 만일 증도에서 돼지가 죽으면 새로 지고 가야한다고 한다. 즉 다른 곳에서처럼 소나 돼지는 산 채로 끌고가서 祭場에서 잡아야 했던 것이다. 전에 洞里 형편이 좋았을 때는 소한마리를 통채로 잡아서 祭需로 바쳤다고 하지만 中間에 그것이 돼지로 바뀌고, 요즈음은 소머리 하나만 사다가 바친다. 그리고 요즈음은 化主만이 아침에 山에 올라가 조라술을 마련하고, 祭壇을 소제하고, 祭官들은 저녁식사후 해진 다음에 山에 오른다. 化主는 일을 거들을 사람과 함께 올라가 조라항아리에 찔밥에 누룩과 엿질감을 함께 버물려 넣고, 종지로 封하여 素壇 옆땅에다 묻은 후 저녁 子正 전에 祭지낼 때 파내어 조라술을 걸른다. 이때 벌써 어지간히 술맛이 든다고 한다.

丁巳年(1977年) 山고사에는 祭官은 初獻官 朴長義(61세), 亞獻官 申順奉(70세), 終獻官 高明達(67세), 執事에 박우성(42세), 化主에 박은석(62세) 諸氏였다.

祭需는 素壇에는 바위 위에 목면(모밀떡, 현재는 밀가루를 되게 반죽한 것을 쓴다)을 세 덩치놓고, 祭床에는 노구메(새옹밥) 한그릇에 숟가락 셋을 꽂아놓고, 生무세개, 두부세모, 소금, 호추차(호추를 물에 탄것이다), 조라술(곡차라고도 한다)석잔, 祭床 兩쪽에는 양초에 불을 켜 놓는다.

肉壇에는 77年 山고사에는 소머리였으나 전에는 돼지를 잡아 내장을 빼고 털만 벗긴 다음 네足を 종지로 감아 生것을 얹어놓았었다. 그밖에 밤, 호두, 은행, 피жат(이 밖에 가얌, 비자 등 일곱까지 三皮 가진 果實을 써야한다), 북어포, 식혜, 조라술을 놓고, 양초에 불을 켜 놓는다. 三皮果實을 써야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血食千秋」라는 말이 전한다고 하나 그 뜻을 아는 이가 없었다. 후일의 숙제로 남기고자 한다. 그리고 石山에는 떡을 안 쓴다고 하여 祭物에는 시루떡을 비롯하여 一切 떡이 없었는데 이질도 다른 곳에도 그러한 例가 있는지 유의하여 보아야 할 점이다.

1969年 日本 愛知縣北設樂郡에서 行하는 「하나마즈리」(花祭)를 參觀하였을 때 天祭의 祭物로 「술, 비자, 밤, 마, 감자, 메밀, 떡」(早川孝太郎, 1966)을 쓰는 것을 보고 깊은 山村의 祭物이기에 이같은 주로 山이나 밭에서 나는 것을 쓰는 줄로 생각했었는데, 維楊里 山고사에 三皮 가진 열매나 메밀을 써야 한다는 것과 비교할 때 혹시 벼농사 이전의 火田耕作을 주로 하던 時期의 유습이 아닌지 모르겠다.

참고로 維楊里에 전하는 「山祭告祀冊」에서 「品目支出」과 「山祭祭物目表」「化主 準備物品」을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이 冊에는 祝文과 함께 「甲午八月初三日 始作」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甲午年은 1954年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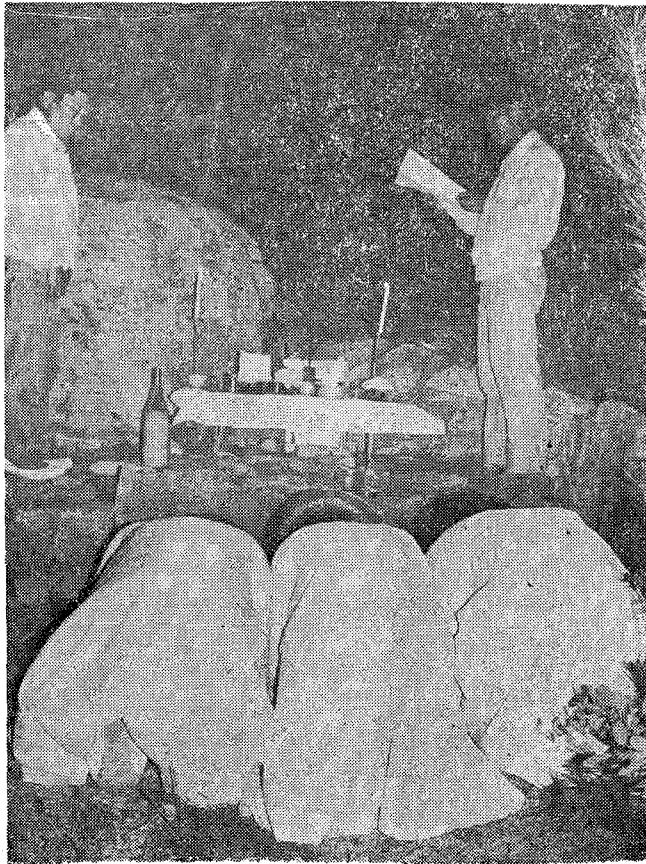
『品目支出』은 창호지 아홉장, 소지지 한권, 호추 한봉, 잣 오홑, 은행오홑, 북어오매, 무우 두개, 소금, 목면, 곡자(누룩), 침채, 채태, 새것, 장작, 두부, 간장, 고추장, 고추가루, 「山祭祭物目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은행, 호두, 피жат, 가얌, 비자, 밤, 창호지 열장, 소지지 다섯권, 양초

한갑, 북어 다섯개, 호초 한면, 재염 오홉, 두부 한개, 무 세개, 白米, 火木, 길금, 곡자(누룩), 목면, 「素壇祭物」은 노구매, 두부, 무 세개, 소금, 목면, 호추차, 곡차(祭酒), 양초, 식혜, 「肉壇祭物」은 돼지, 호두, 은행, 피갓, 포, 식혜, 祭酒, 양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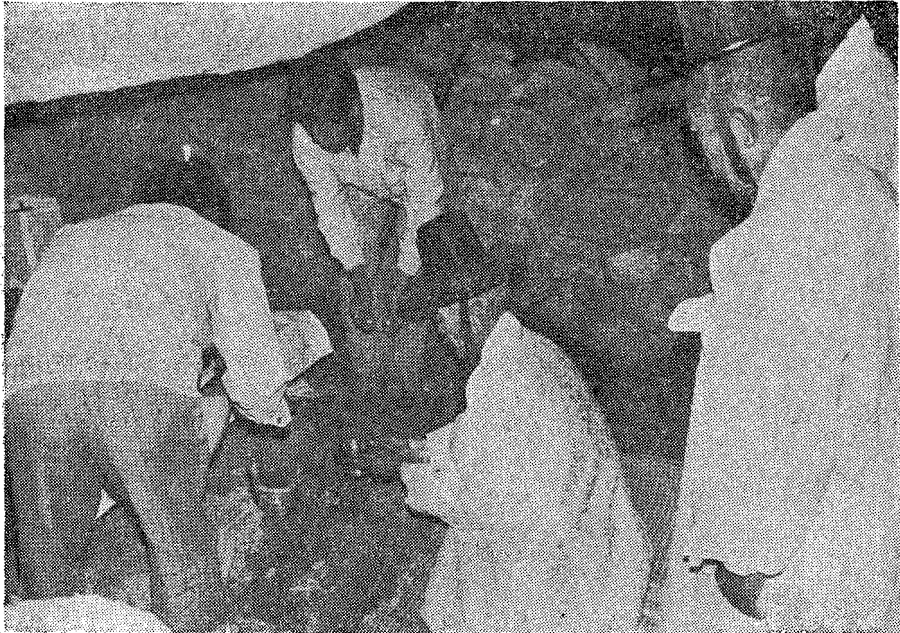
「化主의 準備物品」가마솥 하나, 착은술 세개, 세옹 하나, 배석 하나, 香爐, 香盒, 촛대, 석잔대, 도마, 칼, 저삼매, 조리, 시집 한개, 체, 도끼, 한릿자리 빈병 두개, 조라, 향아리, 종이 한장, 자배기 세개, 물통 두개, 바가지 두개, 책상 하나, 길금, 곡자, 식기 일체, 간장, 김치, 깍두기, 나물, 파, 고추장, 고추가루, 행주, 국자, 주걱, 숟갈.

祭順은 儒式으로 먼저 앞줄에 三祭官과 祝官, 祭壇 양옆에 都執事와 執事, 뒷줄에 10餘名의 마을사람들이 늘어서 손을 높이 들어 四拜하여 參神, 이어서 焚香하고 降神하면, 素壇에서는 單酌, 肉壇에서는 三酌으로, 初獻이 있고, 讀祝(里長이 都執事와 祝官을 겸하였다)하고, 一同 四拜, 다음으로 亞獻과 終獻이 있는 다음 燒紙를 올리고, 술을 부으면서 祝言하고 다시 一同 四拜하고 끝난다.

祭祀는 子正에 시작하여 먼저 素壇에서 약 20分 가량, 肉壇에서 약 25分, 모두 한 시간



〈圖 2〉 州內面 維楊里 山교사 素壇告祀



<圖 3> 州內面 維楊里山고사 肉壇 初獻官獻酌

미탄의 시간이 걸렸다. 이때 온 마을이 조용해야 한다.(圖 2, 圖 3. 參照)

祭後에 올리는 燒紙는 祭官을 위한 燒紙를 먼저 올리고, 다음이 마을의 各機關을 위한 燒紙, 그리고 各洞別로 大同燒紙를 올리고나서 各家家戶를 위한 燒紙와 各個人을 위한 燒紙를 올린다. 燒紙까지 올리고 나니, 祭祀는 모두 약 한시간 반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祝文과 祝願의 例는 아래와 같다.

維楊里 山祭祝文

丁巳八月十三日

維歲次丁巳八月庚戌 朔十三日 乙酉

初獻通政 朴長義

亞獻通政 申順奉

終獻通政 高明達

佛谷山 山王大神至公至察紫山黃影五穀豐登府近重生無由安過雨順風調始終如一 無災收獲戰息平和建設
祭基至誠奉獻謹以清酌脯醢祗薦于神尚
饗

大同燒紙의 祝言

「정기도 양주군 주내면 유양리 이면 여러분이 일년열두달 삼백육십오일이 하루같이 몸건강하게 도와 주시고 또 객지에 나가서 있는 자손들도 몸건강히 사업에 충실하게 거저 山王大神님께 소제올리오니 잘돌봐 주시기를 빌고 바랍니다」

各 機關을 위한 祝言

「주내면 면사무소의 소제올시다. 일년대내 거저 상부상조로써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기를 빕

니다.]

「유양리 양주별산디놀이 천원의 소지올시다. 거저 몸이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에서 끝밭이 있는 산디놀이가 되서갖구, 우리 유양리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더없이 바랄 수 없는 소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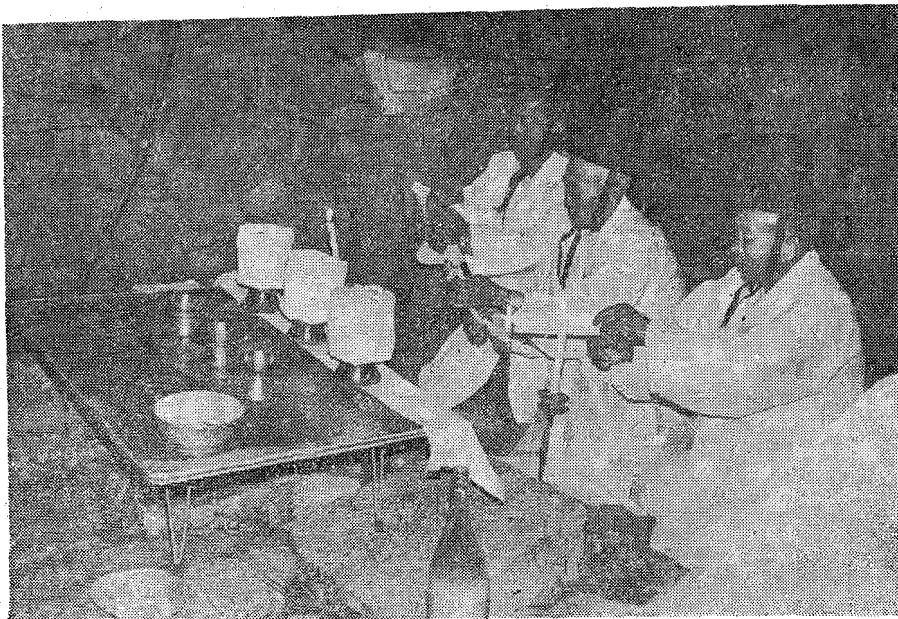
個人을 위한 祝言

「이 소지는 유양리 정미소업을 하고 있는 이경택씨 소지올시다. 방아 잘 돌아가고, 쌀 잘 빠지게 하고, 고생 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치성때만 되면은 큰 마음으로 부추를 해주시는데 기계 고장도 안나고, 벼 한가마 찌면 쌀이 여섯말 일곱말씩 쏟아지게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오신 이 박사님께 앞날의 두궁한 발전과 번영을 점지해 주시기를 산신령님 앞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圖 4 參照)

徐貞柱翁(1894~1978)의 이야기에 의하면 祝文은 佛經에서 나온 祝으로 經文이 섞여 있었으나, 자기의 祖父代에 없어졌다고 한다. 후지 素壇고사에 읽던 祝文이 따로 있어 그것을 가르킨 것인지 모르겠다. 素壇의 祝文은 祝文 글귀를 같은 것을 일곱번씩 읽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읽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祭費는 維楊里 全戶數 約 160戶 중, 예수민는 집 約 50戶을 빼고나면 나머지 100戶에서 추렴한다. 77年の 경우 밀어서 各戶마다 200원의 추렴이었다. 그중에서 가령 精米所主人이 쌀 한말을 내고, 柳敬成氏가 막걸리 한 말을 올려보냈는데, 이같은 特別 추렴이 있다. 祭費支出 중에서 제일 큰 몫이 소머리 하나 16,950원이었고, 나머지 돈으로 기타의 祭物을 준비하여, 추렴 총액 23,500원에서 총지출은 23,320원이었다. 이처럼 祭費가 가난한 것은 近來에 와서 維楊里가 經濟的으로 不振한 데다가 山고사에 대한 洞民의 信仰心도 희박하여



〈圖 4〉 州內面 維楊里山고사 燒紙場面

저간 데 이유가 있다. 前에는 他處로 나간 洞民들의 몇몇은 洞祭 때 찾아와서 參與하기도 하고, 祭費뭇을 보내오기도 하였으나 요즈음은 그러한 사람들도 없어졌다고 한다.

祭後의 飲福은 參席者들이 함께하고 祭物 중의 일부를 化主집에 보낸다. 전에 큰 소를 잡았을 때는 各戶에 소고기를 돌렸고, 돼지를 잡았을 때는 祭後 삶아서 飲福하고 나머지를 갖고 내려왔다고 한다.

以上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維楊里 洞祭는 아무 祝祭도 뒤따르지 않는 순전한 儒式洞祭라고 하겠다. 湖南의 많은 堂祭에서 農樂이 함께 하고, 앞서 言及한 奄尾里 바깥마을 洞祭에서는 60여년 전까지만 해도 儒式洞祭 후에 고창굿이라고 하여 巫堂을 불러 巫樂과 더불어 굿을 하고, 才人廣大들이 꼭두각시놀음과 탈춤을 놀고, 줄타기 등 재주를 보이며 이 고창굿은 2~3일씩 계속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의 東海岸의 別神굿과 같은 形式이라 하겠다.

維楊里는 山臺놀이의 고장이지만 현재 들을 수 있는 바로는 四月初八日의 燃燈놀이 때 탈춤을 놀았으나 山고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고 한다.

3) 維楊里堂굿 「국수당굿」

維楊里에서 婦女子들이 중심이 되어 올리는 堂굿에 「국수당굿」이 있다. 도당굿, 부군굿, 대동굿이라고도 불리나 현재 이곳을 主祭하고 있는 趙英子萬神(71세)에 의하면 「국수당굿」이라고 한다. 趙英子萬神의 神어머니가 되는 음팽이 萬神이 主祭하던 굿당으로 마을 西쪽 佛谷山 중턱, 국수당이 있던 터에 지금은 神木(참나무)만이 남아 있어, 遮日을 치고, 굿당을 꾸민다. (圖 5. 參照) 趙英子 萬神의 말에 의하면 본래 국수당굿은 음팽이만신(河氏)이 쓰



〈圖 5〉 州內面 維楊里 국수당굿터

던 堂을 자기가 이은 것으로 마을을 위한 堂이 아니라 萬神의 個人堂이었다고 한다. 萬神이 쓰는 堂곳에 洞內도 위하니 都堂곳으로 잘못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 婦女子중에서 化主가 나와 全洞民으로부터 白米나 돈 또는 쌀 같은 것으로 施主를 걷어 곳을 올리는 것을 보면 지금은 大同곳의 성질이 질다 하겠다.

趙英子萬神은 神어머니로 楊州郡의 案巫堂이었던 禹璜이 萬神과 승냥이 萬神(金氏)의 두 사람을 섬겼다. 禹璜이 萬神은 客門洞에 居住하며 國수당을 맡았으며, 近年의 楊州山臺놀이의 名演戲者였던 金星泰(1894~1962)의 어머니였고, 그 남편인 金盛運은 70여년 전에 山臺춤의 名手로서 왜장녀役을 잘하였으며, 禹중춤을 잘추던 石性默과 함께 山臺놀이의 主動者였다. 石性默의 어머니도 서낭당을 맡았던 지린내 萬神이었고, 假面製作者였던 申順彌은 승냥이 萬神의 남편이었다. 이같은 巫業과 山臺놀이와의 提携가 維楊里의 特色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한편 東部洞에 居住하던 승냥이 萬神은 紺嶽山(紺嶽山)을 맡았었다고 한다. 이 地域巫堂들은 德物山과 紺嶽山으로 山쓰러, 즉 山致誠하러 다녔으나, 解放후로는 開城地方인 德物山으로서는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標高 675m의 紺嶽山은 山頂에 俗稱「빛돌대왕」이라고 하는 約 3m의 石碑가 있는데 여기에 祈子하면 靈驗이 있다해서 楊州, 抱川, 高陽, 積城, 坡州, 交河, 漣川 등지의 住民들이 信仰하여 德物山과 함께 神山으로 여겨 왔으나, 이 또한 臨津江을 두고 以北과 接한 危險地區로 一般人的 入山이 禁止되고 있다.

國수당곳의 祭日은 每 3年마다(즉 滿으로 2年마다) 陰曆 3월에 날을 받아 꽃맞이곳으로 하고, 그 사이의 해에는 서낭당곳을 하였다. 그러나 祭費의 추렴이 안되거나 不淨이 있으면 가을 打作후로 미루었다.

筆者가 參觀한 1974년의 國수 당곳은 봄에 化主로 예정된 사람에게 不淨이 있어 가을로 미루어 11月 26日(陰 10月 13日)의 가을곳이었다. 國수당곳은 다른 곳의 都堂곳과는 달리 아침 11時頃에 시작하여 해질 무렵까지 晝間에 올리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趙萬神의 말은 國수당곳은 萬神의 山이기 때문에 自己가 堂主이자 化主가 되나, 近來에 와서 自己가 61년에 失明한 뒤로 化主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大同곳인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德化가 없다고 한다. 1974年 가을 곳에는 上化主 楊氏, 中化主 朴氏, 下化主 金氏의 三化主가 나와 마을에서 施主를 걷었다. 제1반인 모퉁이밭(院隅洞)에서 施主한 사람은 17名, 제2반 빙구동(氷庫洞)은 20名, 제3반 원골(山城洞) 17名, 제4반 客舍마을(客門洞)은 17名, 제5반 東部洞은 20名이다. 約 160戶가 된다는 維楊里에서 91名이 施主하여, 戶當 平均 쌀 2~3되가 된다고 한다. 쌀 다섯 가마는 모여야 곳을 할 수 있다고 한다. 施主에는 不淨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과 法蓮華經信者(創價學會員)들은 除外한다. (1978年 4月 19日의 곳에는 쌀 3가마 1斗, 돈 5萬원이 건졌다)

이날 곳에는 失明하였지만 維楊里의 趙英子萬神(67세)이 堂主이자 主巫堂이었고, 助巫로 박수무당 조병호(42세, 본래 楊平사람이나 議政府居住), 女巫 김경애(35세, 議政府고등골

居住), 박용례(39세, 議政府居住) 등이 굿을 도왔고, 국수당에 노구메 올릴때 祝願은 박수 김창석(39세, 楊州郡居住)이 맡아서 하였다.

不淨거리가 시작되면서 堂主가 먼저 노구메를 국수당에 올리는데, 김창석박수가 趙萬神 대신 국수당 祝願을 올렸다. 紺嶽山에 들어가 致誠들일 때는 三山을 쓰나 국수당에서는 국수당 七星佛師님만 모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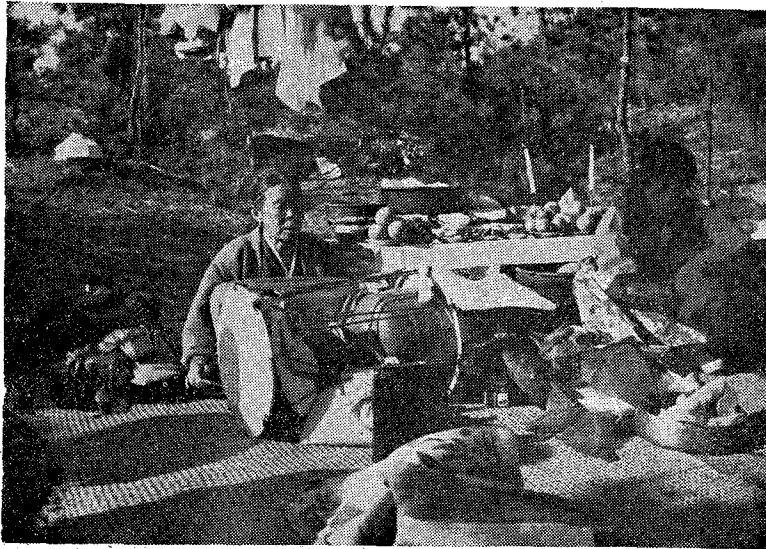
祭順은 먼저 1. 행추물림으로 차일밖으로 무당의는 모두 내보내고, 不淨床앞에서 굿이 시작되었다. 전에는 피리, 짓대, 해금의 삼재비를 서술서 불러 썼으나 지금은 비용관계로 平服차림의 趙英子萬神이 혼자 장구를 치면서 不淨거리가 진행되었다. 이날 三化主와 더불어 마을婦女子들 30여명이 굿에 參禮하였다.

祭床은 佛師床, 大안주床(上山床), 大監床, 不淨床을, 시루에는 불사시루, 성주시루, 도당시루, 山시루, 대신시루, 大監시루, 티주시루를 마련한다. 佛師床의 주된 祭需는 불사시루(백설기)하나 메 한대야, 누름적, 두부, 배, 사과 세개씩, 밤등 삼색과일, 후추차와 대추차에 종이로 불사고깔을 접어놓고, 촛불을 켜다. 여염집굿에는 징편, 가래떡 세접시, 각종 채소나물이 더 있다. 佛師床과 大안주床, 즉 上山床이 主床인데 上山床에는 소머리와 돼지머리, 돼지다리, 고기산적 등 肉類와 上山시루(팔시루떡)에 조라술 석잔을 올린다. 大監床은 대감시루(팔시루떡)에 소나 돼지등과 복어를 놓고, 막걸리를 부어 놓는다. 不淨床은 떡 두접시, 복어와 술 두 잔을 놓는다. 이상의 여러 床을 一列로 부쳐놓고 굿을 하였고, 여염집에서 굿할 때와는 달라서 비용이 충분히 견히지 않았기 때문에 祭物을 격식대로 갖추지 못하여 간소한 床이었다. 굿이 끝나면 祭物은 반기지어 施主한 집에 조금씩이라도 돌린다.

2. 不淨거리는 ① 初不淨에 이어 ② 不淨請拜로 진행되면서 각거리의 여러神들을 청배하고, 그 家族들을 위하여 壽福을 빌어준다. 3. 本鄉노래가락을 부르고 나서 진적(작)들이는데 장단을 세게 치며 大안주床(上山床)을 올리고, 술 석잔을 붓고 촛불을 켜다. 이것은 山마누라를 청하는 뜻이라고 한다.(圖 6. 參照) 다음으로 4. 上山노래가락을 부른다. 이때 전에는 本鄉공수와 가망공수를 주고 나서 음행이 萬神과 승냥이 萬神의 신이 내려 공수를 주나 이번 굿에서는 대신할머니(말명)거리에서 내렸다. 그러나 보통 石氏家의 지린내 萬神은 내리지 않는데 그것은 지린내 萬神이 아랫마을 서낭당을 썼기 때문에 국수당에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굿이 시작되면 국수당 堂나무밑에서(그 밑에 샘이 있다) 洞里婦女子들이 노구메(재옹밥)와 물고기, 나물, 과일 등 반찬과 淨水 한 그릇과 돈을 놓고 祭酒(석잔)을 올리고, 촛불을 켜고, 짚을 피우고, 巫堂이 家族들의 福을 빌어주며 燒紙를 올린다. 이때 김박수가 祝願을 올려 주었다. 祝願뒤에 밥을 떠서 나무잎에 담는다.

김창석 박수의 국수당 祝願을 들어보면 먼저 東西南北의 山王大神과 八道名山の 山神과 佛國山神靈을 청하고, 百穀맞이로 洞內一同이 올리는 致誠이라는 것을 알리고, 예순일곱살



〈圖 6〉 州內面 維楊里 국수당굿 初不淨거리

老人祈子(趙英子萬神)와 그밖의 곳에 참석한 祈子(巫堂)들에 대해 빌고, 마을을 위해 祝願하였다. 그 祝願의 한대목을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억조창생 만민들을 구제증생을 시키시고」「가가호호면면촌촌 사는 백성에 하나같이 밝히시고 하나같이 굽어서어, 억조창생에 만민들을 낮이면 물맑히고, 밤이면 불을 밝혀, 불곡산 신령님네 굽어 하찰 하옵시고, 대동의 제자들이 금일정성 발원이니 모든것 다 이루게 하옵시고…」

이 祝願의 內容으로 미루어 보아도 국수당굿이 堂主萬神과 洞里를 함께 위하는 大同致誠, 즉 都堂굿의 성격과 같음을 짐작케 한다.

다음은 佛師床앞에서 흰고깔과 장삼에 붉은 띠와 가사메고, 5. 佛師祝願거리(帝釋請拜) 6. 佛師 맞이 7. 七星맞이 8. 帝釋거리의 順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佛師床에는 백설기 한시루외에 노구메를 올리고, 쌀 한 말을 갖다 놓는다.

조병호 박수에 의한 불사축원은 징을 치면서 먼저 觀世音菩薩을 위시하여 諸佛을 부르고 이어서 도당산은 불곡산, 도당은 국수당이라고 하여 국수당할아버지를 부르고 예순 일곱살 趙氏祈子를 위시하여 朴氏 祈子, 金氏祈子和 三化主, 마을 사람들을 一一히 呼名하여 壽命長壽를 祝願하였다. 이어서 「국수당 할아버지 자손 축원대로만 접지하시고」「정성을 바쁘시고 빈촌이 부촌되게 도와주시」라고 마을진체를 위하여 재수를 祝願하고 이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북통일도 소원이오」라고 하여 國家의 將來와 國家元首의 萬壽無疆과 나라 百姓이 태평하고, 젊은이들은 나아가 忠臣이 되라고 祝願하였다.

다음으로 朴容禮萬神이 佛師床 앞에서 6. 佛師맞이 7. 七星맞이 8. 帝釋거리를 진행하였다. 服色은 흰장삼과 고깔에 붉은 띠와 가사를 메고, 素부채를 들고 방울을 흔들면서 朴萬

神이 佛師講拜를 하면 조박수가 장고를 치면서 만수받이를 하였다. 「석가여래, 시준불사, 보살불사」 등 여러불사를 청배하고, 「화해받고, 놀구나서」 各姓받이와 三化主, 나라만신 趙祈子에게 壽福을 줄 것을 祝願하였다.

이어서 七星맞이로 여러 七星을 청배하는데 여러 七星중에 「동두 칠성, 서두칠성, 남두칠성, 북두칠성, 도당칠성」 등이 있다. 「칠성님이 화해하고 놀구나서」 三化主와 趙氏祈子에게 복을 빌고 또 「가구마다 명을 주구 복을 줍소」라고 동네를 위해 祝願한다.

이어서 여러 帝釋님을 청배하는 데, 그중에 「도당제석, 삼불제석, 고깔제석」 등 여러 帝釋이 있고 大同精誠을 받으시기를 發願이라고 빈다.

이어서 장고와 제금을 차차 빠르게 치고, 萬神의 춤도 빨라지다가 激한 跳舞를 한참 추고 나서 공수를 준다. 먼저 大同공수로서, 할머니도당위에 山所를 쓰게 했다고 나무렸고, 또, 楊氏, 朴氏, 金氏의 三化主가 애도 썼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도당을 대우하면서도 이 祈子를 쓸가 저 祈子를 쓸가 말이 많았다고 나무렸다. 다시 빠른 장단에 맞춰 跳舞를 하고 個人공수를 주었다.

여염집에서 굿할 때는 물동이의 번죽에 올라서서 佛師神을 神託하여 공수를 주나 국수당 곳에서는 山에 들어왔기에 물동이를 타지 않는다고 한다. 巫堂이 꽃맞이곳 같은 데서는 山거리에서 물동이 위에 작두를 놓고 장군이 작두를 탄다고 한다. 趙萬神이 물동이와 작두타는 것은 山에 오른다는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個人공수는 먼저 上化主인 楊氏와 차례로 中化主 朴氏, 下化主 金氏와 參加婦女子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本人과 그 家族들에게 대해서 공수를 주었다.

上化主 楊氏에 대한 공수를 옮겨 보겠다. 「우리 기주(季主)야, 이번에 힘을 많이 더렸다만은 병나지말구 낱상관 하거든 가지마라. 우리 기주가 남보게는 이렇게 말정해두 일상에 몸이 피로울구 궁곤하다. 어지러운 관세가 돌아오면」 「걸우워주세요」(楊化主의 말) 「양어깨가 놀리우구 팔다리가 쭈시는 관세가 비치니, 이번에 아무쪼록 오나 산신 불사님이 받드려 도와주마, 하—산신 칠성님과 오늘은 사해로 용궁칠성아니시리. 양산은 본향은 산신칠성이오, 오늘은 은하수 서릿발같이 내리셔서 산천영기로 받드시고, 불사서기로 받들어서 오나 걱정마라, 소원이 뭐 도와주마」

帝釋거리에서 공수주고 나서 佛師노래가락을 부르며 바라를 판다. 제금에 받이나 과자를 놓고 參禮者들에게 祝願하며 나눠주면 任意대로 그 값을 낸다.

佛事맞이, 七星맞이, 帝釋거리를 朴萬神이 혼자서 계속하였다. 거리마다의 神을 講拜하여, 祝願하고, 노랫가락과 춤으로 神을 讚揚娛神하고 빠른 장단에 激한 춤을 추어 神이 내리면 공수(神託)를 준다. 이것이 京畿地方 큰곳의 三段階의 構造이나 以北萬神은 공수다음에 다시 장단에 맞춰 跳舞하고 送神하는 것이 다르다. 都堂곳은 여염집곳에서 하는 거리와 거의 같으나 다만 공수주는 것이 다를 뿐이다.

9. 호구거리는 趙박수가 흥치마와 저고리로 女裝하고 방울과 꽃부채를 들고, 먼사포처럼 다홍치마를 쓴다. 紅疫의 發病을 뜻한다. 굿거리 장단에 맞춰 跳舞하고 나서 공수준다. 戶口는 지샘 많은 女神으로 이때 빗, 연지, 끈지, 거울 등, 화장품 살 돈을 받고 흥치마를 머리에서 벗는다. 病이 나왔다는 표시이다.

이어서 조박수가 10. 本郷거리 11. 萬明거리(대신할머니) 12. 上山거리를 맡아하였고, 13. 將軍거리 14. 별상거리 15. 五方神將거리 16. 上山大監거리는 김경애 萬神이 맡았다. 그러나 보통 한사람의 巫堂이 巫服을 겹쳐입고, 上山거리를 하고 나서 藍天翼을 벗고, 별상거리와 神將거리는 같은 복색으로 계속하고 나서 夾袖를 벗고, 大監거리에서는 戰服만 입는다.

山神本郷거리에서는 趙박수가 夾袖만입고 굿을 진행하였는데, 都堂本郷神이 내려 공수를 줄 때 국수당 윗쪽에 山所를 쓰게 하였다고 몹시 怒하여 펄펄뛰고, 山中턱까지 뛰어 올라갔다. 국수당이 있는 山을 싸울 있는 사람에게 팔았으므로 그가 국수당 윗쪽에 山所를 쓴 것이다.

萬明거리는 대신할머니거리라고도 하여 음팽이 萬神과 승냥이 萬神의 녀이 들어와 놀았다. 할머니神이 내려 子孫들과 더불어 弄도하고 祝福도 하는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多分히 遊興的要素가 많은 거리이다. 都堂굿이 본래 家庭굿의 재수굿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吉禮이므로 始終 婦女子들의 놀이와 같은 분위기이다. 趙萬神이 失明하여 주요한 거리를 맡지 못하였고, 이번 굿의 巫堂들은 請拜打令(巫歌)도 제대로 부르지 않고, 거리마다 공수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巫堂은 말명노랫가락에 이어 술을 청해 마시고, 당팔들은 「많이 잡숫고, 많이 놀다가세요」라고 대꾸한다.

上山거리, 一名 山거리는 山神을 모시는데 특히 德物山 崔瑩將軍을 모시는 거리라고 한다. 趙萬神의 神어머니였던 승냥이 萬神은 德物山과 紺嶽山을 썼다고 한다. 보통 神어머니인 큰 巫堂이 이 거리를 司祭하는데, 이때는 趙박수가 맡아하였다. 神裝은 藍치마에 夾袖, 戰服, 戰帶를 매고 그위에 藍天翼의 順으로 끼입고, 술머를 맨다. 빗갓(朱笠)을 쓰고, 靑龍刀(偃月刀)와 三枝槍을 갖는다. 이 거리에서 작두를 타나 국수당굿에서는 이미 山에 들어왔기 때문에 타지 않는다고 하였다. 上山床 앞에서 춤을 추고 공수를 준다음 三化主와 굿에 參禮한 사람들에게까지 「어느백성, 내백성 아니시리」라 하며 술잔을 내려준다. 이때 神事德을 입는다고 하여 모두 받아 마시고 任意대로 그값을 낸다.

將軍거리는 김경애 萬神이 夾袖에 戰笠쓰고, 느린 장단에 춤을 춘다음에 大同공수를 주고 다시 빠른 장단에 춤을 추고 나서 「상장군 마누라, 구덕물산 신령님, 안산 밧산 신령님, 개성은 덕물산 죄일장군님, 평산은 구월산 신장군 마누라, 불곡산은 도당신령님, 감박산신령님, 한라산 여장군 마누라」 등 여러 장군님을 부르고 「도와주마, 소원이루워주마」고 個

人 공수를 주었다.

별상거리리는 天然痘神을 위하는 거리이다. 神裝은 夾袖에 戰笠쓰고, 三枝槍과 꽃부채를 들었다. 장고에 맞춰 請拜歌와 춤과 공수를 준다음 돌 위에 靑龍刀를 놓고 사실피이고, 또 三枝槍으로 소다리와 돼지머리를 꿰어 사실피부친 다음 별상 노래가락을 불렀다.(圖 7. 參照) 별상청배가의 첫머리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 나라 이씨별상, 젓나라의 흥씨별상, 강남은 대한민국에 사실피별상, 가중마다 전중마다 남녀애기 들 우두마마 씨두마마, 강남은 대한민국서, 선세분 나오실제, 조선국 줍단말슴 들으시구, 원분은 회경허구, 삼세분이 나오실제, 종이배를 타시자니 미어져서 못타시고, 나무배를 타시자니 사가서 못타시고, 돌배를 타시자니, 갈아얹아 못타시고, 쇠배를 타시자니 무거워 못타시고, 별상님의 영검술로 수양버들 잎을 타시고, 삼세분 나오실제, 가구적간 인물추신 허실적에, 목기전에 들으셔서 정화수 소반을 받으시구, 웅기전 들으셔서, 정화수 동이를 받으시구, 사기전 들으셔서 정화수 사발을 받으시구, 필목전 들으셔서 칭기흥기 받으시구, 종이전 들으셔서, 일산을 받으실제, 별상님 영검수로, 가구적간 인물추신 허실적에, 흥진은 대집에, 우두마마, 씨두마마, 한쌍에 일흔주구, 두쌍에 점단지어, 팔반손님 호반손님 녹두손님 대들어 갈지라도, 들어석달 편안하고, 나삼년이 무고하고, 흥진은 대정이오, 내들어 갈지라도 후돋침 선돋침 지치시고 물리소서……」

神將거리리는 東西南北中央의 五方을 지키는 神將을 모시는 거리인데 夾袖에 戰笠을 쓰고 五方旗를 어깨에 멘다. 神將타령을 하고 나서 靑紅白黑黃色의 五方旗를 둘둘 말아 대쪽을 당꼴들 앞에 내밀어 旗를 뽑게하여 旗色으로 占을 쳐준다. 神將거리가 끝난 다음 點心時間으로 쉬었다.

上山大監거리리는 大監床 앞에서 戰服만 입고, 꽃부채를 든다. 이거리리는 山神 특히 崔瑩將軍을 수행하는 神을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 소머리를 등에지고, 왼손에 북어, 오른손으로



<圖 7> 州內面 維楊里 국수당굿 별상거리

막걸리를 뿌리며 𡇗堂 뒷산과 周圍를 一周하고 나서 上山大監타령을 한다음 공수를 주면서 술잔을 당골들에게 돌린다. 이 上山大監거리가 끝나고 당골들이 무감을 섰다.

17. 성주거리와 18. 倡夫거리를 곁들여서 趙박수가 𡇗을 진행하였다. 성주거리는 여염집 𡇗에서는 家神을 모시는 거리인데 都堂 𡇗에서도 都堂성주를 모신다. 紅天翼에 빛갓쓰고, 꽃부채를 든다. 座巫와 만수받이를 하고 춤추고 공수를 주었다. 한편에서 다른 巫堂이 마을에서 施主한 各戶를 위해 燒紙를 올린다.

창부거리는 倡夫 즉 廣大(俳優)의 神靈을 모시는 거리인데, 일년 열두달의 橫厄을 막아주는 神이다. 圓衫에 죽두리를 쓰고 꽃부채를 든다. 倡夫공수를 주고, 倡夫打舍에서 일년 열두달 달마다의 橫厄을 막아주는 타령을 부른다. 趙英子가 부른 唱夫打舍의 한대목을 옮겨 보면 아래와 같다.

「정월이라 열나흔날 직성이라 없을소나, 월직성 화직성 수직성 계도직성 목직성 금직성 토직성 일직성, 대주에는 열두직성, 기주에는 아홉직성, 애들에는 일곱직성, 언짢은 직성은 가려내다 의주월강에 소멸하구, 좋은 직성은 가려다가 아무가중 전임하자, 삼재팔난이 있는 집은, 언짢은 삼재, 재물의 실패삼재, 자신의 계살삼재, 풍파삼재, 내외의 공방 삼재는 가려다가 언짢은 삼재는 의주월강으로 소멸허구, 드는삼재 명삼재루 점지하고 묵는복삼재 나는삼재 수삼재로 점지하여주자, 언짢은 삼재가려낼적에 원산말독에 상동정밧구 양귀비조각 떼서 의주월강 소멸하자.

정월에 드는액은 이월개춘에 막아내구, 이월에 드는액은 삼월삼절에 막아내구, 삼월에 드는액은 사월영등에 영등춧불로 막아내구, 사월에 드는액은 오월금단에 막아내구, 오월에 드는액은 유월유두에 막아내구, 유월에 드는 액은 칠월이라 칠성맞이루(백중마지로) 막아내구, 칠월에 드는액은 팔월한가위로 막아내구, 팔월에 드는액은 구월구일누 막아내구, 구월에 드는액은 시월상달에 막아낼제 성주받이로 막아주구(신목맞이로 막아주구), 시월에 드는액은 음아동저로 막아내구, 동짓달에 드는액은 설달이라 스무닷새 회동자기로 막아낼제 입춘대길로 막아내구, 설달에 드는 액은 정월이라 열나흔날 원산말독에 상동정 받아내고 양귀비조밥 받아다가 의주월강에 소멸하구……」

19. 계면각시거리: 치마저고리의 平服차림으로 趙박수가 계면떡을 이고, 떡타령을 하며 떡을 판다. 「계면떡을 먹도록 𡇗을 봤다」는 俗談이 있는데 이것은 𡇗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 있었다는 뜻이다.

20. 터주걸림은 趙박수가 平服차림에 大監床의 떡시루를 이고, 주위를 돌며 대감타령을 하고 술을 돌례에 뿌렸다.

21. 지신거리: 만수받이를 하고 공수를 주었다. 지신공수에는 「동해지신, 서해지신, 남해지신, 북해지신, 한가운데 원당지신, 할아버지지신, 할머니지신, 이마당 이터전에 천년지덕, 만년지덕 누려주자」라고 하였다. 이밖에 집짓는 대목, 지경다지는것, 절구질하는 노래까지 있으나 생략되었다.

22. 구능거리: 청배와 만수받이를 하고, 공수를 주고 끝냈다.

23. 서낭거리부터는 朴容禮萬神이 맡아 平服차림으로 서낭거리와 24. 상문 25. 영산까지 만수받이로 계속부르고, 징과 장고의 빠른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끝냈다.

국수당굿에는 萬神이 쓰는 산이기에 갖은 뒷전은 없다. 장군님을 맞아왔으니 巫堂이 집에 돌아와 3日만에 새로 떡시루를 짜고, 국수당굿에 쓰던 祭物도 갖추어 놓고 징을 치면서 회정(맞이)굿을 한다. 이때 三化主를 위시하여 祭物을 차려온 사람들도 불러, 고기는 삶아서 사실 놓고, 함께 飲福시킨다. 이것으로 비로소 국수당굿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3. 大池洞 都堂굿 「山致誠」

1) 里勢一般

京畿道 楊州郡 廣積面 佳納 2里 大池洞(대못)의 위치는 維楊里에서 약 6km西北方의 가래비(佳納里)장터에서 道樂山(돌알산, 높이 440.8m) 밑으로 2km 가량 들어간다. 交通便은 議政府—法院里—金村行이 하루 32回往復 한 시간에 3~4回 버스가 佳納里 장터를 지나므로 그便을 이용하고, 장은 가래비 장터가 아니면 議政府市場을 이용하는데 가래비장은 5日 장이고 穀物거래가 주가 된다.

大池洞(대못)은 行政的으로는 佳納 2里이고 4개 班으로 나뉘며, 里長은 金正吉(45세)씨다. 人口는 1978年 現在 405名, 男子 197名, 女子 208名이고, 73戶(家口)에 81世帶이다. 人口의 年齡別 統計는 10代—20代가 170名, 30代—40代가 120名, 40代—50代가 70名, 50代—60代가 45名이다.

職業別 統計는 農業은 自作農 51戶, 小作農 20餘家口, 그중 30餘戶가 비닐하우스로 특수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다. 겨울에 상치, 배추, 무우 등을 재배하여 봄에 議政府와 서울等地에 出荷한다. 商業은 없고, 畜產業은 養鷄業 1戶, 젓소 3戶, 養豚과 養兔家는 없다. 公務員으로 教師 1名, 其他 石山에서 雜役하는 사람이 若干名 있다.

所得은 上이 28世帶로 年收 170萬원 程度, 中은 22世帶에 年收 100萬원 程度, 下는 25世帶에 年收 6~70萬원 程度이다. 總耕地面積은 約 162,000坪(800마지기)인데 大部分 논이다. 土地所有는 上戶가 15마지기(3,000坪), 中戶가 10~12마지기, 下戶는 4~5마지기이다.

姓氏는 金氏 17戶, 邊氏 17戶, 李氏 10戶, 張氏 7戶, 崔氏 5戶, 朴氏 1戶, 其他이다.

마을의 각종 모임으로는 開發委員會, 새마을구락부(前 農事改良구락부) 부원 25名, 婦人會(새마을 運動參與, 節米運動), 大池 4H클럽, 其他 各種 親睦契로 酒契, 白米契, 婚喪契 등이 있다. 이밖에 大同會가 있어, 年老한 사람들중에서 해마다 會長(전에는 領座님)을 뽑아 마을의 指導者로서 모시고, 그 밑에 財務를 맡아보는 副會長을 젊은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 里長은 行政的인 일을 맡아 보지만, 이 會長은 마을의 일로서 가령 山致誠같은 일은 도맡아 치루어 나간다. 마을의 일로서 이 會長의 決定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은 開發委員會(里長, 班長, 50~60代에서半, 40代에서 半으로 構成)의 委員과 마을의 각 모임의 代

表들까지 參席하여 議決한다.

學歷別統計는 大卒이 男子 5名, 高卒 男子 14名, 女子 10名, 中卒은 男子 35名, 女子 20名, 國卒은 男子 50名, 女子 35名이고, 文盲은 男子 4~5名, 女子 30餘名이다. 學校所在은 佳納國民學校와 朝陽中學校, 議政府高等學校이고, 大學은 서울에서 다닌다. 宗教는 佳納里 장터에 基督教 聖潔教會가 있어 이 마을에서는 3名의 敎人이 다닌다. 佛敎信徒는 5戶이다. 文化施設은 佳納里 장터에 佳納 새마을 會館, 理髮所 다섯군데, 茶房 다섯군데, 沐浴湯은 없다. 結婚은 外部에서 데려오는 戀愛結婚이 많고, 議政府나 서울의 禮式場에서 結婚式을 가지며 舊式婚禮式은 볼 수 없다. 初喪에는 마을에 喪輿가 있고, 三日葬이 보통인데, 平服에 巾단쓰고 지낸다. 娛樂이나 歲時風俗으로 갖는 行事는 거의 없고, 正初에 율놀이를 하는 정도이다. T.V.保有는 40餘臺로 세집에 한대 팔은 된다. 선풍기 다섯臺, 冷藏庫는 없다.

2) 大池洞의 都堂굿 「山致誠」

마을이 시작된 지 300年은 된다고 일러오고 그때부터 山致誠을 지내왔다고 한다. 이러한 大池洞(대못)의 都堂굿은 「山치성」 또는 「山祭祀」지낸다고 하는데, 마을을 위해 들알산(道樂山) 山神님(우리 서낭이라고도 부른다)을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 먼저 마을의 山致誠에 대한 笏記를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大池洞 都堂굿의 節次와 準備』

시월이되면 洞里有志들이 모여서 山致誠에 대한 擇日을 한다. (每 3年마다라고 하지만 滿으로 2年마다 陰曆 10月 1日에서 5日 사이로 잡는다) 致誠날이 定해진후는 都摠民은 他處에 나가져 않는다.

화주에는 선화주, 앉인화주 두 種類가 있는데, 선화주 두 名은 굿에 대한 심부름만 하고, 앉인 화주 여섯名은 飲食에 대한 一切를 맡아 본다. 화주와 조라들일 사람은 山致誠날에 生氣福德이 맞는 사람으로 大同에서 定한다.

巫女들의 食事は 오는 날 점심부터 시작되어 그 이튿날 저녁때 그치는데 輪番制로 한끼씩 大同에서 시킨다. 巫女는 堂主(首巫堂) 한사람, 補助巫女 若干名으로 한다.

祭物代와 白米 등 굿에 대한 一切費用을 계산하여 貧富에 따라 몇 층으로 추렴으로 나눈다.

굿거리 수는 1. 향토물립 2. 不淨거리 3. 성주맞이 4. 大監거리 5. 帝釋請拜 6. 호구거리 7. 山거리 8. 倡夫거리 9. 티주거리 10. 乞粒거리 11. 地神거리 12. 별상거리 13. 뒷전거리 등 열세거리인데 山거리에 정육이 한 근들고, 乞粒거리에는 길대구 한장이 든다. 祭床에 올려놓는 飲食物의 가짓수는 山床에는 결편 세개씩 한접시, 인절미 세개씩 한접시, 증편 세개씩 한접시

『山致誠에 대한 準備目錄』

堂돈, 白米 4斗, 명주돈, 저녁밥 세말, 백태 두말, 아침밥 한말, 濁酒다섯말, 조라 3升 4合, 국 여섯동, 소머리 1頭, 소足 1足, 정육 한斤, 성주시루, 대감시루, 山시루에 白米 1斗, 計 9.5斗, 정육 한근, 고무신 1足, 난묵다섯마, 사고지 65枚, 닭 두 마리, 石油 한 병, 북어 열마리, 다시마 두쪽지 양초세갑, 창호지 15枚, 양지 5枚, 담배 15갑, 후추 한종지, 사과 15개, 감 15개, 배 15개, 대추 한되, 밤서되, 산자 한 상자, 조파, 달떡 하나 내지 두 그릇, 인절미 하나 내지 두 그릇, 증편 하나 내지 두 그릇, 帝釋床 백설기, 성주시루, 大監시루, 山시루, 호구시루, 뒷전시루, 사제床, 山床, 거리마다 三席, 떡 한床씩, 술한잔

山床에는 湯 두 湯器, 채소 한 湯器, 정육 한근, 생과 감 한개씩 세 접시,
 帝釋床에는 소저 세접시, 인절미 두접시, 증편 두 그릇, 湯 한그릇, 후추차 한잔, 생과 한개씩 세
 접시, 백설기 한시루.
 티주床에는 각각저 떡 한조각씩 담아 놓는다.
 巫女床에는 말명 床은 鏡床, 명두 床은 汗床, 堂主床은 汗床, 其他 萬神床은 사람數대로 汗床씩 차
 린다.
 祭物의 種類는 쇠머리, 쇠足, 닭, 정육, 흰콩, 쌀 증편, 인절미, 후추, 과일삼색, 채소, 두부, 다
 시마, 절편, 소저종이, 창호지.
 山致誠날 아침 후에 壯丁 10餘名이 祠場所의 設備를 맡아보고, 한집에 한탄씩 밤에 쓸 나무를 준
 비하게 된다.

以上の 笏記內容에서 대못의 都堂굿인 山致誠의 大略을 알 수 있으나 具體的으로 1972年
 11月 9日의 都堂굿 參觀(이때는 끝까지 參與 하지 못하였다)과 1976年 11月 26~27日(陰曆
 10月 5日~6日)에 參與觀察한 바를 정리하여 보겠다.

대못의 都堂굿에서는 八化主가 나는데 陰曆 10月初 하루에 大同會에서 生氣福德이 맞고,
 不淨이 없는 사람들로 뽑는다.

1976年(丙辰年)의 山致誠에는 앞인 化主로는 上化主에 최경재(64세), 한수봉(64세), 전
 운배(40세), 장진석(40세), 김명덕(38세), 김종운(37세)들이고, 下化主는 김선중(33세)과
 이덕준(30세)이었다. 이밖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大同會의 會長이 都堂굿을 總指揮하는데
 그는 남보다 祭物도 특별히 많이 바친다. 1972년에는 이윤근씨(61세)였고, 1976년에는 李
 龍得씨(72세)가 會長이었다.

上化主는 化主로 뽑힐날 밤(子正)에 조라술을 堂굿터에 묻는다. 밥을 지고, 누룩과 엇질
 금을 함께 항아리에 넣어서 묻고, 이틀 후 굿날에 걸른다. 이때 조라항아리를 지고, 堂굿
 터를 바라보는 고개에 올라서면 앞이 환하게 밝게 트여 보이나, 조라항아리를 묻고 돌아서
 면 캄캄하다고 한다. 10餘年前까지도 조라들이러 오면 호랑이불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都堂굿에 시설하는 山床, 帝釋床, 티주床, 巫女床 등과 山시루, 성주시루, 大監시루, 호구
 시루 등과 달떡, 증편, 인절미 등은 여섯 化主들이 나눠서 準備한다. 各家戶에서 바치는
 十色떡(달떡과 사과, 배, 두부 등을 꼬챙이에 꽂은 것)은 굿이 끝날때 各家에 나누어 준다.
 「우리서당」은 靈驗이 많으며, 致誠드리라는 것을 支甬에서나 反對하지, 반대하는 사람은
 洞民중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 堂木을 자른 사람들이 세명이 죽었다고 하고, 堂굿터
 쪽으로 大小便을 보아도 미친다고 일러온다. 지금은 堂나무 큰 것은 없고, 대신 심은 적은
 나무가 있다.

祭費는 上戶가 4~5,000원, 下戶가 2,000원, 總費用이 20萬원 程度이고, 공수출 때 걸히
 는 別費가 2~3萬원이 된다.

1976年の 堂主는 박영남(別名 감둥이 만신, 56세, 양주군 백석면 상구능 居住)이었고,

助巫는 이선녀(46세, 양주군 회천면 덕정리 居住)와 장순분(23세, 의정부시 居住)과 피리와 해금재비 두 사람이 參加하였다.

都堂굿은 먼저 堂主人 박영남 萬神이 平服차림으로 해질무렵(6時頃) 돌앞山(道樂山)을 向해서 1. 향토물림 다음에 不淨거리를 쳤다. 不淨床에는 술 두 잔, 북어, 나물, 떡과 부친개 조금씩 놓았다. 堂主巫堂이 不淨床 앞에서 서낭기를 兩手に 갈라 쥐고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나서, 마을을 위해 不淨치는 祝願을 하고, 山을 向해 두번 拜禮하고 끝났다. 約 20分 미만의 시간이 걸렸다.

다음은 돌앞山 山기슭의 都堂으로 옮겨 저녁 食事を 하고나서 2. 가망거리를 6時 45分에 시작하였다. 天幕친 都堂은 東쪽으로 山을 向하여 山床과 그 앞에 帝釋床과 티주床을 놓았다. 그 바른쪽 옆에 各家戶數대로의 十色 떡을 놓았고, 그 뒤로 왼쪽에 巫堂席에 巫女床이 놓여 있다. 山床의 祭物은 술석잔, 소고기, 다시마튀김과 두부, 무우채, 감 세접시이고, 帝釋床에는 가운데에 불사부채를 두부에 꽂아 하나 세우고, 그 옆에 불사고깔을 떡에 꽂아 두개를 세우고, 촛대 양쪽 가운데 백설기 시루 하나를 帝釋거리가 시작되면 갖다놓고, 두부와 떡을 여러 그릇에 갈라 놓았고, 다시마 튀김과 배, 사과, 대추, 감 등 과일과 쌀 한 말과 실을 타래로 엮어 놓았다. 이밖에 성주시루, 大監시루, 山시루, 호구시루, 사제시루, 뒷전시루 등이 準備된다. 都堂 天幕밖에는 밤새도록 장작불을 피웠다. (圖 8. 參照)

堂主는 夾袖를 입고 부채와 방울을 들고 가망 請拜에 이어 6化主들을 위해 祝願하고, 중



〈圖 8〉 大池洞 都堂굿터

간에 燒紙를 올리고 가망노래가락을 부르며 요란한 巫樂으로 끝냈다. 가망거리리는 약 30분 가량 소요되었다.

3. 本郷거리리는 7時 30分頃에 시작되었다. 이때 마을 사람들 男女 各各 30名 가량이 저녁 食事 후 모여들었다. 堂主가 夾袖만입고 처음 神갈을 들고 廻舞하고, 다음은 부채들고 廻舞하고, 山床쪽과 萬神床쪽과 두루 四拜하고 나서, 부채를 놓고 흰종이(本郷紙花)를 양손에 갈라쥐고, 장단에 맞춰 춤춘 후, 장고, 제금소리 점점 빨라지면서 跳舞하여 神이내리면 공수를 준다. 會長과 6化主의 차례로 공수를 주면서 都堂구準備의 不實한 짐을 나무래자 「미련한 人間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읍니다」 「네, 올수다. 命주고 福주세요」 등으로 대답한다. 흰종이를 꼬아 조라술병을 매어쥐고 춤을추고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수를 계속 하고, 조라술병을 山床 옆에 걸어둔다. 이때 不淨을 타서 술병이 쉽게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4. 대신거리리는 「구대신」 즉 돌아가신 萬神의 靈을 위하는 거리라고 하니 만신말명거리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노란 옷을 입고, 부채와 방울을 들었다. 巫樂에 맞춰 춤을 추고, 神이 내리면 마을 사람들에게 福을 비는 공수를 준다.

5. 祖上거리리는 같은 服色으로 특히 上化主내외에게 그집 祖上이 내려 공수를 주었다. 다음으로 노래가락을 하고나서 다른 사람에게 공수를 주고 빠른 장단의 巫樂에 맞춰 춤을추어 送神하고 끝냈다. 여기까지 다섯거리의 굿을 堂主인 박영남 萬神이 맡아서 하였다. 初부정을 저녁 5時 40分에 시작하여 祖上거리를 밤 9時 20分 頃에 끝냈다.

6. 佛師맞이, 七星거리, 帝釋거리를 帝釋床 앞에서 이선녀 萬神과 장순분 萬神 두 사람이 장삼 고깔에 가사메고 방울과 素 부채를 들고 진행하였다. 만수반이로 차례로 佛師, 七星, 帝釋神을 請拜하고 나서 빨라지는 장단에 맞춰서 廻舞하고 萬神들이 帝釋床(佛師床)과 대신床 앞에 번갈아 拜禮하고, 四方에도 拜禮한다. 9時 30分 帝釋거리 진행중에 마을 사람들 男女 백여명이 모였다. 할머니들은 都堂앞자리에 앉았고, 젊은 사람들은 그 뒤에 둘러섰고, 化主들이 萬神시중을 든다. 萬神들은 빠른 장단으로 바뀌면서 跳舞를 하고 神이 내리면 佛師공수, 七星공수, 帝釋공수의 차례로 마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 나이를 묻고 공수를 주면 공수받은 사람들은 帝釋床에 절을 한다. 이때 장순분 萬神은 쌀말 변죽 위에서 제금을 치면서 춤을 추고나서 공수를 주었다. 「받들어 도와 주마」 「예-」 多分히 興겨운 遊興의 雰圍氣가 高潮된다. 帝釋공수 준 다음 帝釋打令을 부르면서 밤·대추 등으로 바라를 판다. 10時半 五日 달은 지고, 東쪽 하늘에 오리는 星座가 뜨고, 몹시 차다. 한편에서 男子들이 모닥불 周圍에 모여서 몸을 녹이는 사람들도 있으나 젊은 패들은 막걸리를 마시고 打令장단에 맞춰 춤도 추고 떠들석하다.

7. 호구거리리는 장 순분 萬神이 붉은 치마를 머리에 쓰고, 洞里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공수주고 연지곤지 값을 받아낸다. 간간이 빠른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나서 공수를 계속 한다. 머리에서 붉은 치마를 벗고 祭床의 떡을 조금씩 떼어 갖고 수비친다고 춤추고 나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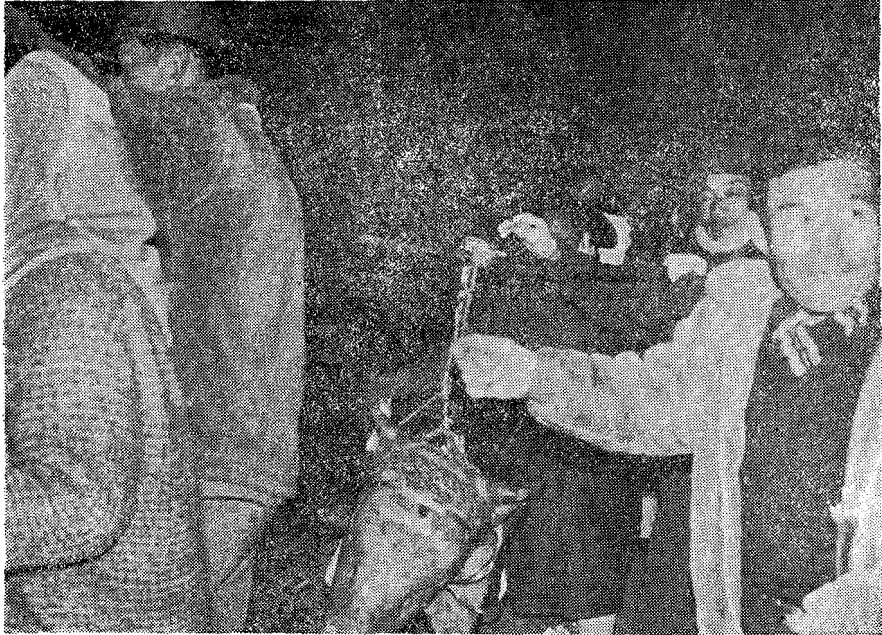
에 버린다. 호구거리리는 두 시간이나 걸렸다.

새벽 한시, 설설끓는 국에, 당번집에서 날라온 밥을 말아 막걸리와 함께 中食을 든다. 한편에서 산더미갈던 나무로 장작불을 피우나 산속의 새벽 氣溫이 霧下로 내려가 추위에 줄 수도 없었다.

8. 山神맞이거리리는 새벽 한 시 지나 시작되었다. 이거리에서 대내린 사람들이 산속에 숨겨둔 소머리 찾기를 하는 것이 대못 都堂곳의 크라이막스가 되는 것 같다. 박영남 萬神이 藍天翼에 빗갓쓰고, 옆에서 제금을 빠르게 치는 속에 방울을 흔들면서 대잡이의 대가 내리기를 빈다. 참나무 가지인 山神대와 소나무가지인 성주대를 두 사람이 각각 잡고, 요란한 제금 소리와 대내리기를 비는 祈願속에 약 20분이 걸려서 대가 흔들리니 대잡이 두 사람을 앞세우고 돌앞山 속으로 소머리 찾기를 나선다. 대는 神明이 있는 사람이라야 내린다고 한다. 神이 내리는 사람이 있고, 내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대잡이와 함께 몇 사람이 횃불을 들고 앞서고 대잡이 뒤에는 萬神이 활(弓)과 살(矢)을 갖고 뒤따르고, 그 뒤에 제금과 장고를 치면서 두 助巫가 따르고, 또 一名 돌앞(山)床이라고 하여 간단한 床차림의 山神床을 갖고 가는데, 이 床은 소머리를 찾은 다음에 現場에서 지낼 간단한 祭를 위한 床이다. 돌앞山으로 오르는 山길을 따라 오르면서 左右의 숲속을 몇번이고 드나든 다음 半時間 가량 지나서 드디어 왼쪽 숲속에서 소머리를 찾았다. 朴萬神이 먼저 소머리를 향해 화살을 두번 쏘았다. 그리고 나서 山神床을 갖다 놓고 朴萬神이 祝願을 외우고, 빠른 장단에 맞춰 춤을 추었다. 마을 靑年 두 사람이 막대기에 소머리를 걸어지고 내려 오는데, 몇번이고 배가 고파 못가겠다고 쓸어지며 장난친다. 그러면 그때 마다 술과 안주를 갖다 먹이면서 萬神이 달래서 일어나게 한다. 소머리는 삶아서 털을 깎은 것인데 山神 맞이하기 전에 마을 靑年들이 산속에 갖다 감추는데 짓곳은 靑年들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 갖다 감추는 수가 있어, 대잡이가 종시 찾지 못할 때는 은근히 유도하여 찾게 한다고도 한다. 소머리를 찾아 갖고 오는 것을 「山神 모셨다」고 한다.(圖 9. 參照) 이같이 무당이 사냥하는 都堂곳은 같은 楊州郡 釜谷里(가마골)의 都堂곳에도 있는데 산속에 숨겨둔 닭 같은 것을 찾아 낸다고 한다.

곳堂에 도착하면 堂主巫堂이 소머리를 三枝檜에 걸어 堂나무자리 옆에 있는 돌위에 세워 사실 부친다. 한번 사실 서면 곳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세워두고, 곳이 끝나면 소머리는 萬神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소머리 사실 세우는 데 한참 동안 애를 썼다. 소머리 위에 돈을 얹고, 化主를 비롯하여 마을 사람들이 몇번이고 절을 하였다. 이거리리는 모두 한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이같이 巫俗에서 숨겨진 物件을 찾는 일은 흔히 선무당이 入巫過程에서 처음 神이 내려 물렸거나 숨겨진 巫衣와 巫具를 찾는 일이 있는데(M. Eliade 1964), 우리나라의 事例도 몇가지 報告되어 있다.(赤松智城, 秋葉隆 1938), (金烈圭, 1971) 筆者가 調査한 海州 萬神



<圖 9> 山 神 맞 이

全大珠(1908~1977)의 경우도 그 典型的인 事例의 하나가 될 것이다(註).

대못 都堂굿에서 最高潮를 이루는 山神거리에서 巫堂이 아니고 마을사람으로 대가 갖내 린 대잡이가 숨겨진 소머리를 찾는 일은 高句麗의 類利太子의 숨겨진 斷劍찾기의 이야기 以來로 선巫堂의 숨겨진 巫具 찾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傳統을 이어온 遺習으로 여러가지로 示唆性이 많은 事例라고 생각된다.

9. 초大監거리는 이선녀 萬神이 말아서 새벽 두 시에 시작하여 한 시간 가량으로 마쳤다. 공수주고 別費받는데 時間이 걸린다. 이어서 성주받아 들이기로 소나무대를 잡고, 대잡이 가 들어와 장단에 맞춰 춤을 추었다.

다음으로 男子化主들부터 祭床에 돈을 얼마씩 놓고 巫服을 빌려입고 (대개 快子를 위에 걸친다), 巫樂에 맞춰 춤을 추어 무감을 선다. 이렇게 하여 福을 비는 것이지만 젊은 巫堂

(註) 黃海道 殷粟出身인 全大珠(1908~1977)는 漢藥房을 경영하는 地主집 七男 二女 중의 둘째 딸로 태어나서 19歲에 시집가서, 28歲가 되는 1935年 어느날 베틀에 앉아 베를 짜는데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고, 장구소리가 들려서 베짜다 말고 정신없이 뛰쳐나가 장구 소리따라 山으로 갔는데, 집채만큼 큰 바위가 있었다. 그밑을 파라는 神의 뜻을 따라 손톱밑에 피가 맺히도록 파다 보니 巫服과 巫具 등이 나와서 5日만에 그것을 짚어지고 장구를 치면서 집으로 돌아오니 평소 양전 하던 良家宅 새벽이 巫堂이 되었다고 해서 媿家와 親家 그밖의 여러 사람들의 놀라움은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전에는 巫堂이 물려받을 神딸이 없이 죽으면 그 巫具와 巫服一切을 땅에 묻어버렸는데, 그 神이 누구에겐가 내려 그곳을 찾아가 파은 자가 진짜 巫堂이라고 일러왔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山은 海州에서 80里 떨어진 장수山이었고, 그 巫具는 3年前에 죽은 박순네 萬神의 것이었다. 朴萬神은 1855年生으로 18歲에 巫堂이 되었고, 76歲에 돌아간 萬神으로 그 家族이 물려 巫具와 巫服을 장수山 바위밑에 숨긴 것이라고 한다. 장수山 山神靈이 全大珠萬神의 몸주었고 朴萬神이 그의 神母靈이었다.

그는 1951年 1.4後退 때 越南하여 仁川과 서울에서 巫業을 계속하다가 서울에서 死亡하였다.



〈圖 10〉 무 감 서 기

의 노래(打令)와 장단에 춤추는 이 무감서기에서 가장 놀이적인 분위가 高潮된다. 마을 아주머니들까지 무감서니 아침 다섯時 날이 밝을 때까지 두 시간이 걸렸다.(圖 10. 參照)

10. 산거리, 11. 將軍거리, 12. 별상거리, 13. 神將거리, 14. 上山大監거리는 박영남 萬神이 三枝槍과 靑龍刀를 들고, 巫服을 겹쳐입고, 다섯 거리를 함께 진행하여 한시간 반 가량에 끝냈다.

산거리는 上山거리로 藍天翼에 빛갓 쓰고, 바른손에 큰칼(靑龍刀), 왼손에 三枝槍을 들고, 소머리를 찌르고 춤추고 나서 山神할아버지의 공수를 化主로부터 차례로 주고, 藍天翼을 벗고, 山神이 내리는 술잔을 마을 靑年들에게 돌린다.(圖 11. 參照)

다음으로 들알山 神靈이 내렸다는 선巫堂 大池洞 居住 李氏(46세)의 몸주本鄉 신명풀이가 있었다. 帝釋服色과 大監服色을 차례로 입고, 미친 듯이 춤추고 나서 공수주고, 술잔을 돌리고 시주를 받았다.

15. 성주거리에선 이선녀 萬神이 各戶를 위하여 燒紙를 올려 祝願하고 나서, 아침 9시 성주거리가 시작되었다. 성주대를 들고, 拜禮하고 跳舞한 다음 化主로부터 공수를 주고 성주대를 쌀에 꽂고, 三枝槍을 소머리에 꽂고, 다시 북어를 三枝槍에 꿰어 세운 다음 성주노래가락을 불렀다.

16. 倡夫거리는 이선녀 萬神이 먼저 만수받이로 請拜하고, 장단에 맞춰 廻舞하고 나서 공수주고, 唱夫打令을 하였다. 이때 婦女子들이 나와 같이 춤추었다.

17. 大王거리는 박영남 萬神이 만수받이로 請拜하고, 방울을 흔들면서 跳舞하고 나서, 부



<圖 11> 山 거 리 공 수

체에 달린 노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공수를 주고, 떡을 뿌리고 끝냈다.

이어서 참나무대(山神대)와 소나무대(성주대)를 쌀말에 꽂고, 祭床에는 소머리를, 떡시루에는 소뎀을 놓고, 巫樂을 치고, 성주대를 대잡이 김종석(58세)이 잡으면 방울을 흔들면서 대내리기를 빈다. 대가 내리니 巫樂에 맞춰서 대를 祭床 위로 흔들고 龕堂內를 한바퀴 돌고 나서 밖에나가 山神에게 바친 祭物 그릇을 치우게 하고, 또 祭床 위의 祭需가 不足하고 못마땅하다고 쓸어버린 후 堂主를 대로 때리면서 다시 차리라고 요구한다. 다음으로 대잡이는 미친듯이 激한 춤을 추고나서 대를 龕堂 뒤에다 鎮座시켰다. 성주대를 내보내는 거리라고 한다. 대잡이가 끝나고 나니 그는 虛脫狀態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18. 터주大監, 乞粒大監, 地神을 장순분 萬神이 만수받이로 계속하여 請拜하고 나서, 북어와 소뎀을 들고 춤추고, 또 떡시루에 소뎀과 북어를 넣어 이고, 바른 손엔 막걸리 사발을 들고 山을 한바퀴 돌고 나서 술을 뿌리고 내려왔다. 이어서 大監打命을 부르며 洞里사람에게 술을 주고 시주를 받고, 짚오쟁이를 쓰고, 독갑大監, 수풀大監이 왔다고 하여 공수들을 준다. 소뎀과 떡을 떼어놓고 술 두잔을 놓은 乞粒床 앞에서 춤을추고 나서 터주, 乞粒, 地神의 공수를 차례로 주고, 북어와 떡과 술을 뿌리고 拜禮하고 나서 끝냈다.(圖 12. 參照)

19. 뒷전은 오후 1時 25分 박영남 萬神이 돌알山쪽으로 뒷전床을 차려놓고, 영산수비치고 나서 進行하였다. 小盤에는 양재기 그릇에 밤 두사발, 술 두사발, 고기 한접시, 배와 감 한접시, 각종 떡을 조금씩 떼어 한접시, 북어 하나를 놓고, 小盤 왼편으로는 祭酒사발을 넣은 떡시루가 있고, 그옆에 生닭 두 마리를 놓았고, 床바른 쪽에는 소뎀과 막걸리 주



<圖 12> 티 주乞粒

전자가 놓였다. 뒷전이 시작되면 佛師床 옆에 놓아 두었던 十色 떡을 各戶마다 들린다. 모두 그것을 그 자리에서 먹기도 한다.

① 구능거리리는 堂主가 뒷전거리리는 다음과 같이 進行된다. 왼손에 소다리 오른 손에는 북어를 잡고, 제금과 장고장단에 맞춰 跳舞하고 나서 구능大監, 上山大監, 本鄉大監이 차례로 내려 공수를 준다. ② 서낭거리리는 만수받이로 請拜하고 跳舞후 서낭공수를 주고, 다시 요란한 제금과 장고장단에 맞춰 닭과 소足を 兩손에 갈라쥐고 춤을 추고, 소足과 닭을 兩쪽 어깨에 메고, 입에도 물고 춤을 추다가 칼로 닭의 목을 베는 시농을 하고 나서 칼을 집어 던져 칼끝이 밖으로 向할때까지 계속 한다.

다음으로 여러 영산을 위하는데 차례로 다음과 같은 귀신들이 들어와 그 시농을 하고 위한다. 嶺東地方 別神굿의 거리굿과 比較하여 볼 때 이 뒷전거리의 내용이 本來의 宗教的機能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다면 別神굿의 거리굿의 내용은 보다 더 獨演形態의 演戲로 展開된 것임을 볼 수 있겠다.

③ 영산거리리는 먼저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나서 목 매죽은 영산(귀신)의 시농을 하고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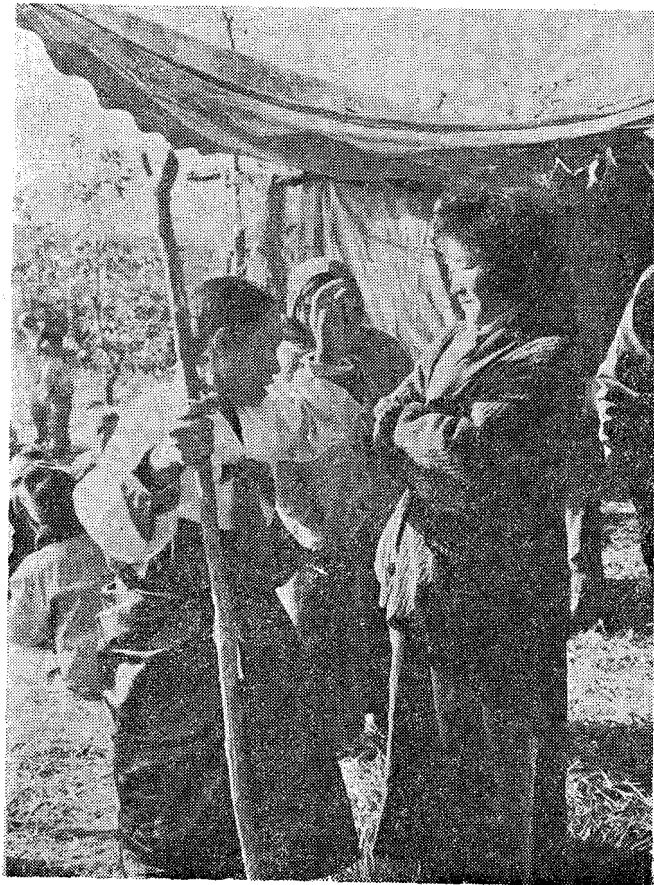
을 달라고 한다.

④ 짚으로 머리를 동여매고, 머리얌다 죽은 귀신이 내렸다고 아픈 시늉을 한다. 그러면 그러한 病死者가 있는 집에서 돈을 내어주며 위로 한다. 다음은

⑤ 아기낳다 죽은 귀신이 내리, 「아이구 배야」하며 아이낳는 시늉을 하고, 물바가지를 형질으로 싸서 아기 머리라고 하고 아기우는 시늉도 하고, 아기를 얼른다. 洞里婦女子들에게 「아들낳게 해줄까?」라고 묻기도 하고, 難産으로 죽은 產母가 있는 집에서 돈을 준다.

⑥ 다음은 장님귀신이 나왔다고 하여 장고제비 巫女와 對話를 나누며, 沈奉事라고 하며 도망간 뺨덕어미를 찾아 나섰다고 하고, 洞里婦女子 한사람의 손을 잡고 찾았다고 한다. 이때 奉事打舍, 방아 打舍 등 노래를 부르며, 洞里 사람들과 對話하며 演劇의 놀이가 興겹게 벌어진다. (圖 13. 參照)

다음으로 ⑦ 병신귀신, ⑧ 미친귀신(미쳐죽은 處女귀신이 나왔었다) ⑨ 음을 얌다 죽은 귀신 ⑩ 병어리귀신 ⑪ 이 얌다 죽은 귀신 ⑫ 술취해 죽은 귀신 ⑬ 곱추귀신 ⑭ 속병얌고



<圖 13> 뒷 견 (장님영산)

간 귀신, ⑮ 下血하여 죽은 귀신, ⑯ 들에 맞아 죽은 귀신, ⑰ 불에 타죽은 귀신, ⑱ 몽달 귀신(장가 못가고 죽은 총각귀신), ⑲ 손각시(시집못가고 죽은 처녀귀신), ⑳ 눈병영산까지 非命에 간 여러 귀신(영산)이 내려 그 귀신의 서러운 이야기며 動作의 시늉을 내고, 洞里 사람들과 수작하고, 시주를 받고 祝福도 해 준다.

끝으로 각종영산의 영산풀이를 말로만 섬기고 나서, 각종 祭物을 잡탕으로 만든 것을 四方에 뿌려 먹이고 끝낸다. 하오 2時 40분에 모두 끝났다.

祭後 마을에 돌아와 저녁에 飲福하며 大同會를 열어 會長과 化主들은 會計報告를 한다.

以上 維楊里 都堂굿과 大池洞 都堂굿의 節次를 大略 적어 보았으나 紙面關係로 巫歌와 祝願의 내용을 제대로 옮기지 못한것은 未備한 점으로 남게 되었다. 더 상세한 記述은 後日로 미루고자 한다.

4. 結 言

韓國에 있어서도 部落祭의 社會的 機能은 첫째는 統合機能이 될 것이다. 血統性이 강한 韓國에서 姓族을 超越한 親睦의 機會를 제공하며 그 準備로써 祭官이나 化主의 選出에서부터 祭後의 飲福과 大同會에 이르기까지 洞民의 一體感을 가져오고, 아울러 마을 自治의 政治的 機能도 볼 수 있다 하겠다. 楊州舊邑의 洞祭인 「山고사」와 「都堂굿」을 男女가 各各 따로지내는 것은 楊州郡 내에서도 여기가 過去에 楊州牧使가 있던 舊邑이요, 한편 楊州郡에 매인 案巫堂도 있던 곳이라는 歷史的인 理由들에서 由來된 現象이 아닌가 생각된다. 全洞民이 함께 都堂굿을 지내는 곳은 楊州郡內에서도 大池洞외에 南坊里와 長興面의 釜谷里 등 몇군데 남아 있으나 지금은 儒式洞祭를 지내는 곳이 대부분이다. 男女老少가 함께 모이는 大池洞의 都堂굿에서 우리는 部落祭가 갖는 統合機能과 政治機能을 볼 수 있고 아울러 祝祭機能도 볼 수 있었다. 또한 巫堂의 歌舞뿐만 아니라 무감서기로 洞民들도 歌舞를 즐겨 藝術的 機能의 集團藝術欲求의 充足도 볼 수 있었다. 라디오와 T.V. 등의 보급으로 결과된 새로운 大衆娛樂의 침투로 靑少年層의 參加는 漸減되어가고 있는 것은 또한 都堂굿이나 別神굿판에서 볼 수 있는 否認할 수 없는 現象이었다.

部落祭의 宗教的 機能은 점차 減少되어가고 祝祭와 娛樂·藝術的機能만이 殘存되고 變質되어가는 것이 現代에 있어서의 全般的인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堂굿은 巫堂들의 한결 같은 굿의 節次와 歌舞의 레퍼토리로 洞民들의 興味를 잃어가고 있고, 한편에서는 東海岸의 別神굿에서처럼 各 거리의 神이 나온김에 놓고간다고 하여 畵의 流行歌謠까지 불러 農漁村의 洞民에게 娛樂를 제공하고, 그 거리굿에 있어서도 演戲的 要素가 점차 現代의 生活에 맞게 變質되어가고 있는 現象을 볼 수 있다. 部落祭의 人類學的 考察 특히 演劇과의 關係는 더 많은 民俗誌의 정리와 함께 後考로 미루고자 한다.

參 考 文 獻

- 洪錫謨, 1894. 東國歲時記, 京城, 光文會
- 李能和, 1927. 朝鮮巫俗考, 京城, 啓明俱樂部
- 村山智順, 1937, 部落祭, 京城, 朝鮮總督府
- 赤松智城・秋葉隆, 1938, 朝鮮巫俗의 研究, 京城, 大阪屋號書店
- 秋葉隆, 1954, 朝鮮民俗誌, 東京, 六三書院
- 早川孝太郎, 1966, 花祭, 東京, 岩崎美術社
- 張籌根・崔吉城, 1967, 京畿道地域巫俗, 서울, 文化財管理局
- 李杜鉉・張籌根・玄容駿・崔吉城, 1969, 部落祭堂, 서울, 文化財管理局
- 金斗憲, 1969, 韓國家族制度研究,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 金烈圭, 1971, 韓國民俗과 文學研究, 서울, 一潮閣
- 李杜鉉・張籌根・李光奎, 1974, 韓國民俗學概說, 서울, 民衆書館
- Fortes, M. 1936 Ritual, Festivals and Social Cohesion in the Hinterland of the Gold Coast. *American Anthropologist*, N. S., 38
- Eliade, M. 1964, *Shamanism*, New York, Pantheon Books
- Leach, E.R. 1964, *Political Systems of Highland Burma*, London, The Athlone Press.

* 본 논문은 1977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연구 논문임.

Korean Village Festivals Today

—Dongje and Tangkut—

Du-hyun Lee

Abstract

The *Korean Village Festivals*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Confucian* and *Shamanistic* ones. The ceremonies in the first type named Dongje are conducted very quietly in most cases without music and dance by male ritualists elected by the villagers at midnight in shrines. The ceremonies in the second type named Tangkut are performed by female shamans with music and dance. Besides the above regular ones, there has been an orgiastic grand village festival, named Pyolsin-kut, which has been performed every third, fifth, seventh or tenth year. The Korean village festivals have their aims at petitioning for a good harvest, a good catch of fishes, freedom from diseases, having many sons and many domestic animals or even for security and unification of the nation etc. They also have a social function in integrating the members of a village.

This study is based on the ethnographic data participant observed from a confucian type and shamanistic type of village festivals at Yuyang-ri, Junae-myŏn, Yangju-gun, Kyŏnggi-do on 25th september, 1977 and on 19th April, 1978. And a village festival performed by shamans at Daeji-dong, Kanab-ri, Kwangjŏk-myŏn, Yangju-gun, Kyŏnggi-do on 26th 27th November, 1976.

In most cases, the festivals have farmers' band music, folk songs, shamanistic music and dance therefore have provided for opportunities in the development of the folk arts. But the modernization of the Korean rural societies has made changes in the functions and forms of the festivals. The village festivals in today's Korea are remained as simply religious ceremonies, which are participated mostly by olders because the youngers think that such ceremonies are superstitious. Those folk arts are now separated from the religious ceremony and are developing into arts for their own sake.